碩士學位請求論文

北韓 主體思想의 變化에 關한 硏究

- 理論과 展開 樣相을 中心으로 -

指導敎授 高 性 俊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民倫理敎育專攻

朴 永 昊

1996年 8月

北韓 主體思想의 變化에 關한 研究

— 理論과 展開 樣相을 中心으로 —

指導敎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民倫理敎育專攻

提出者 朴 永 昊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朴永昊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6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康根亨 印

審 査 委 員 김명주 印

審 査 委 員 高性俊 印

〈抄 錄〉

北韓 主體思想의 變化에 關한 硏究

— 理論과 展開 樣相을 中心으로 —

朴 永 昊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民倫理敎育專攻

指導敎授 高 性 俊

본 연구는 북한 주체사상의 이론과 전개 양상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에 의하여 전개되는 주체사상의 강조점들에 주목하여 그 장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주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며, 이 개념으로부터 '주체사상'으로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에 와서였다.

주체사상의 변화는 1974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되고 '김일성주의'를 천명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다.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란 두 논문은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의 변화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80년대 주체사상의 변화과정에 드러난 중요한 특색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전통의 계승이 감소한 반면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 무렵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대변혁을 목격하면서 김일성 지배하의 조선민족만이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된 단위가 된다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했다. 이것은 체제의 존속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방어적 논리로 나온 것이었다.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와의 관계는 상호작용의 관계였다. 사상이 체제를 규정하여 이끌어 온 측면도 있었고,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정치지도자들이 사상을 형성해 온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북한체제가 붕괴할 때 함께 사라질 것이지만, 그 시기까지는 대체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며 존속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目　　次

〈抄　錄〉
Ⅰ. 序　　論 …… 1
1. 問題의 提起 …… 1
2. 硏究方法 및 硏究範圍 …… 2

Ⅱ. 主體 提起 以前의 北韓 統治이데올로기 …… 4
1. 政權樹立과 마르크스－레닌主義 …… 4
2. 소련의 影響力과 社會主義 建設過程 …… 15

Ⅲ. 主體思想의 形成 및 變化過程 …… 23
1. 主體 提起 背景과 主體思想의 體系化 過程 …… 23
2. 主體思想의 理論的 틀 …… 29
3.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 …… 41
4. 主體思想의 防禦機制 : '조선민족 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 48

Ⅳ. 金日成 死後 主體思想의 展開 …… 61
1. '인덕정치'로 粉飾한 '우리식 사회주의'論 提示 …… 61
2. '주체의 사회주의' 固守 …… 65
3. 政治 思想敎養의 强化 : 金正日 讚揚의 極致 …… 67

Ⅴ. 主體思想의 變化 可能性 …… 69
1. 北韓體制維持의 特性 …… 69
2. 北韓社會의 變化 可能性 …… 71
3. 主體思想의 未來 …… 74

Ⅵ. 結　　論 …… 76

參 考 文 獻 …… 79
Summary …… 8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序　　論

1. 問題의 提起

북한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서 주체사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왜 또 주체사상을 연구하고자 하는가? 간단히 답하자면, 주체사상은 북한 이해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북한체제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직도 형성(변화) 중에 있는 사상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얼마나 중요한가? 주체사상은 북한의 현실적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처한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다. 후자의 측면에 주목한다면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 자체의 변화, 발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窓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통한 접근은 북한사회를 총체적인 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한 연구방법이라 보아진다.

오늘날의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인 과정 및 구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념체계이다. 주체사상은 사상가나 철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체계적인 사회개혁의 이론과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金日成이라는 한 정치가가 1955년 이래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당화와 새로운 체제건설에 대한 의견 또는 신념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첨가 혹은 부가시키고 후계자로 지목된 金正日이 복합적인 명제들을 정리·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전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의 주체사상은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했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제시된 4가지의 주체성 원칙이나 혁명적 군중노선들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출발했다기 보다는 中·蘇紛爭과 사회주의체제 건설의 와중에서 대외적인 자주성의 확보와 대내적인 동원을 위해 제시되었던 정책 대강이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구축에 따른 우상화

및 김정일의 등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인식에서 金日成主義化를 선언하고 3大革命小組運動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1982년 이후 金正日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심화되었으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체제구조(regime structure)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체제이념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세계체제에 대한 인식변화 및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포함하면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시대적 낙후성을 부각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종래의 어떤 주의나 사상보다도 우월한 이념체계임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개양상의 변화를 거치는 사이 북한이 애초에 제기하였던 외세 의존에 반대하고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의 주체에 대한 주창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세계체제의 변화로 굳이 주체를 침해할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체사상의 이론과 전개 양상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1980년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부각된 이후 그에 의하여 체계화되고 변용된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와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에 의하여 전개되는 주체사상의 변용에 있어 새로운 강조점들에 주목하여 그 장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2. 研究方法 및 研究範圍

이상의 연구목적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주체사상 관련 1·2차 자료들을 위주로 문헌분석의 방법을 택했다. 기본자료로 삼은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논문과 연설문, 그리고 북한 간행물 등이다. 1차 자료가 갖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의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업적들을 비교·

분석하여 활용해 보고자 했다.

둘째, 「歷史社會學的 接近方法」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역사사회학적 접근방법」은 사회구조와 시간적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회구조적 상호작용에 유의하여 사회변화의 유형을 규명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북한체제의 역사성과 더불어 정권수립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수용에서부터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 김일성주의에로의 심화 발전을 거쳐 '우리식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변화과정, 이론적 체계, 전개된 양상 등을 북한사회의 대내외적 흐름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제Ⅰ장 서론, 제Ⅱ장 주체제기 이전의 북한 통치이데올로기, 제Ⅲ장 주체사상의 형성 및 변화과정, 제Ⅳ장 김일성 사후 주체사상의 전개, 제Ⅴ장 주체사상의 변화가능성 및 제Ⅵ장 결론 등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분명히 하고 연구방법을 기술한다.

제Ⅱ장에서는 소련의 영향 아래 정권수립 과정과 소련식 마르크스－레닌주의 수용, 사회주의 체제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민주화(공산화) 개혁' 조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주체'개념의 대두배경과 주체사상의 형성 및 체계화 과정을 살핀 후,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구성에 따라 주체사상의 이론적 틀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공식 천명되지는 않았으나 오늘날 주체사상이라고 불리우는 김일성주의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체제수호를 위하여 방어기제로 전개된 '조선민족 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을 논의한다.

제Ⅳ장은 김일성 사후 '주체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기 위하여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인덕정치', '붉은기 철학' 내용과 사상교양의 강화 실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북한체제유지요인의 특성 및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체사상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제Ⅵ장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북한 체제의 장래와 관련하여 향후 주체사상의 변화가능성을 예측해 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 主體 提起 以前의 北韓 統治이데올로기

1. 政權樹立과 마르크스－레닌主義

오늘의 북한 정권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성립되었다. 대일전쟁 참가 문제를 논의한 연합국 정상들의 얄타·포츠담 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한 지역에는 1945년 8월부터 소련군이 진주하였는데, 북한에 있어서 공산당(로동당)에 의한 정권수립은 소련 점령군의 감독 아래 진행되었다. 1948년 12월에 철수할 때까지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던 그들은 3년 4개월 동안에 모스크바가 작성한 시나리오, 스탈린이 선정한 배역 및 연출에 의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북한에 완성시켰던 것이다. 소련 점령군 당국은 金日成을 선택하고, 그를 북한의 정치 지도자로 부상시켜 공산화를 추진해 갔다. 따라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북한의 정권수립 과정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수용은 소련 점령군과 김일성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1) 解放 당시 北韓의 政治狀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일제의 철저한 민족 말살 정책과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해방 당시 한반도에는 어떤 정당이나 민족 세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다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방에는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된 서구문화가 일찍 유입되어 있었던 만큼 기독교 인구가 절대 다수였다. 민족주의자들은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으나 그들도 결속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은 아니었다.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운동은 아주 미약했으며 게다가 소련과의 연계도 거의 없었다. 1925년에 창설된 조선공산당은 당내의 심한 파벌싸움으로 인하여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1928년에 해체되었기 때문에 해방 당시 국내에 당 조직을 갖지 못하였다.[1] 숫적으로 적고 분산된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활동하였

1) 란코프 안드레이(1995),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김광린 역(1995), 오름, p. 64.

으며, 이들 대부분은 남한에서 활동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출옥한 공산주의 운동 지도자들이 북한 지역에도 있었으나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해방 공간에서 소련군이 점령하기 전까지의 북한의 상황은 曺晩植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절대 다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고작 토착 공산주의자로 玄俊赫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2] 조만식은 8월 17일 「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라는 지방자치조직을 발족시켰는데, 위원장인 조만식 이외에도 각각의 민족주의 세력들을 대표하는 2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3명만이 공산주의자들이었다.[3] 평양의 「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는 북한의 여러 다른 지역들에게 하나의 모형이 되어 도, 시, 군, 등 그 지역 단위의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자치기구가 조직됐다. 한편 공산주의 지하 운동가였던 현준혁은 「조선공산당 평안남도지구위원회」를 8월 17일에 출범시켰다.[4]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정책에 따라 북위 38도선 이북이 소련의 점령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소련 극동군은 제1방면군 휘하의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에게 북한 점령의 책임을 맡겼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에 전쟁을 개시한 뒤 한반도의 북쪽 끝 경흥을 거쳐 웅기, 나진, 청진항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8월 24~26일에는 평양 진주를 끝내고 치스차코프 사령관은 평양에 「북조선주둔 소련점령군사령부」를 설치했다.[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소련 점령군은 곧바로 사령관 명의로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했다.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 주었다. 지금은 이 여러 나라의 인민들이 자기 생활을 제손으로 건설한다.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2) 김학준(1995), 「북한 50년사」, 동아출판사, pp. 66~69.
3) 란코프(1995), 전게서, p. 65.
4) 김학준(1995), 전게서, p. 83.
5) 상게서, p. 66~69.

의 목적은 그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있어서 그들을 방조하여 다음에는 그들이 자기 소원대로 자기 땅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스탈린의 이 말씀은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 벌써 실천되었다. 이 말씀은 조선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실천되고 있다.……"[6]

이 포고문은 표면상 민족 해방의 은인으로 자처하며 북한 주민을 격려하고 정치체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듯 포장됐으나, 스탈린의 진정한 의도는 친소 정권을 세우는 데 있었다. 스탈린은 1946년 8월 13일 東歐의 공산화 企圖에 대한 처칠의 대소 공박 연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수하였다.

"……소련은 자기 장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여러 나라(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를 말함)에서 소련의 충성된 정부의 존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7]

스탈린이 장래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동구에다 소련의 「충성된 정부」를 수립하려 했다면, 소련과 접경해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북한 공산정권의 수립은 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점령관계를 정치적 정복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스탈린의 팽창주의의 산물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소련의 占領地域 統治類型과 北韓

2차 대전이 끝난 뒤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들에서 채택했던 통치 방식은 다음 네 가지 유형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의해 이뤄졌다.[8]

첫째는 소련의 지원을 받지 않고 대체로 자신의 반파시트 게릴라운동의 결실로 독립을 쟁취한 국가로, 알바니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후진 농업국인 알

6)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1981), 「북한연구자료집」,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pp. 1~4.
7) 梁好民(1972),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정치II」,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p. 66.
8) 김학준(1995), 전게서, pp. 75~76.

바니아는 「알바니아공산당」의 지휘 아래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의 침략에 대항, 독립 투쟁을 전개해서 1944년 11월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련의 물질적·군사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

둘째는 연합국들의 지원과 자신이 주도한 반파시트 투쟁의 결과로 독립을 달성한 나라인데, 유고슬라비아가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유고슬라비아는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자, 공산주의자 티토는 비공산계 민족주의자들과 합작해서 「반파시트 유고슬라비아 민족해방회의」를 결성해 연합국들의 지원을 받고 나치 독일과 싸워 독립을 얻은 것이다.

셋째는 소련군의 진주로 독립을 얻은 뒤, 선거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비공산주의자들과 연립정부를 세우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공산 세력이 소련군의 배경 아래 쿠테타를 일으켜 연정을 무너뜨리고 전체를 장악한 경우이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가 여기에 속한다.

넷째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처음부터 자신이 선정한 소련파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소련군의 강압적인 주도로 공산당이 집권한 경우이다. 동독과 폴란드가 여기에 속하며, 루마니아는 이 경우와 세번째 유형 사이에 속한다.

소련군은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넷째 유형에 비슷한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북한 당국과 관영 역사책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첫째 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이 조직하고 지휘한 항일 게릴라 투쟁을 통해 조선과 조선 인민을 해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권했음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들에 반대된다. 소련 군대의 북한 점령과 그들의 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소련의 「88여단」 대위였고 소련 기선 「푸가초프」 호에 실려 귀국했던 당시 만 서른세 살의 김일성은 정권을 장악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9]

9) 란코프(1995), 전게서, p. 26.

3) 北韓의 共產化 過程

소련은 북한을 공산화함에 있어서 1945년 이전에 중앙아시아 소수민족과 외몽골에서 얻었던 경험, 그리고 2차 대전후 동구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산화 하려고 했다. 이는 소련 지도부의 마음에 드는 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의 공산당에 의한 체제 확립과정에 대해서는 소비에트화 테제의 수용 여부 따라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나,[10] 대체로 「소비에트화 4단계」를 밟아 완성되었다고

10) 柳吉在(1995), "政權形成期 北韓硏究에 대한 一批評," 「北韓硏究」, 1995년 봄호, pp. 152~174. 柳吉在는 이 연구에서 北韓政權의 형성문제를 소련의 영향하에서 정권을 수립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5편의 연구물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소피에트화'테제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소비에트화 테제를 처음으로 체계화시켜 북한에 적용한 梁好民에 따르면 소비에트화란 "소련군의 그림자 밑에 있는 곳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국내 공산당의 지도하에 스탈린의 의사대로 재편성하는 것"을 뜻한다.

-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전2권(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1972).
-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I* Ⅰ : *The Movement*(Berkeley and LosAng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 2 volumes(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1990)
- Hak-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A Ph. D. dissertation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1994. 8).

柳吉在의 분석에 따르면 양호민과 스칼라피노, 이정식은 소비에트 체제의 移殖에 주목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만 양호민이 소련의 압도적 영향력을 강조했다면,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은 양호민보다는 소련으로부터의 북한 국내 정치의 자율성을 좀더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박명림은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이들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며, 백학순은 근대적 민족국가의 성립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에트국가 형성이 당연한 것으로 깔려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에 있어서 소련이라는 외부적 행위자의 의도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평했다.

커밍스는 한국의 전통적인, 그리고 일제하 식민지에 기원을 두고 있는 한국적 사회경제구조와 정치적 관행이 해방직후라는 권력의 공백기에 표출되어 지극히 한국적인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커밍스에게 북한의 소비에트화 테제는 우선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이후 북한체제의 일탈적 경험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실패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커밍스는 앞의 연구자들과 중대한 차이를 가지며, 아마도 당시 한반도의 혁명적 상황에 가장 최초로 또 체계적으로 접근했던 학자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이 타당한 것 같다.[11] 여기서 「소비에트화 4단계」란 지도자의 수입·양성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권력 체제를 확립(제1단계)하고, 공산당과 민족세력이 공동의 단기 목표에 입각하여 연합하는 순수한 연립정부 형성(제2단계)에서 출발하여, 순수한 연립정부 형성에 포함시켰던 국내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한 뒤, 친공 세력 및 중간파와 제휴하게 되나 실권은 공산당이 장악하는 사이비형 연립정부 형태(제3단계)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공산당의 단독적 정권을 수립(제4단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련에 충성하는 공산정권을 완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소련은 북한 공산화의 제1단계로 2개의 정치집단을 북한에 파견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파」들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소련 국적의 한인들(소련파)이었다.

소련 지도부에 의하여 북한에 파견된 한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1945년 가을이 되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군사 동원기관들은 교사, 당원, 공무원, 직업군인, 정부요원 및 코민테른 출신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평양에 파견, 제25군 총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게 하였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현지 주민들과 소련 군정 당국간의 접촉을 지원하고 제반 동원활동을 수행하며, 소련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 선전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일부는 당 및 국가기관으로 파견되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소련의 군사·정치 지도부는 曺晩植을 지도자로 하는 현지 민족주의 정치세력에 의존해서 전개하려던 대북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 구성 중에 있던 정치체제를 지도할 인물을 찾고 있었다. 김일성은 빨치산 대원들과 함께 1945년 9월말에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그의 도착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지역공산주의자들 중에는 국내에서 단 얼마라도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이 없었다. 남한에서 활동한 조선공산당 지도자 朴憲永도 독선과 소련과의 소원한 관계 때문에 소련장군들로부터 특별한 호감을 받지 못하였다.

---

11) 이하의 논의는 金甲喆·高性俊(1988),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文佑社, pp. 44~46 참조.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의 평양 출현은 소련 군정당국의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알맞는 것이었다. 과거의 빨치산 활동으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갖고 있던 소련군대의 젊은 장교(소련군 대위)는 박헌영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선진보세력의 지도자」라는 자리에 잘 어울리는 후보자로 선택되었다.

김일성은 소련 군정당국의 명령에 따라 10월 14일 평양 경기장에서 열린 소련해방군 환영 군중대회에서 환영연설을 하였는데, 치스차코프 사령관은 김일성을 「민족영웅」, 「유명한 빨치산 지도자」로 소개하였다.

김일성이 군중들 앞에 나선 것은 권력의 정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다. 다음 단계로 김일성은 12월에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책임비서로 임명되었으며, 1946년 2월 그는 소련 군정당국의 결정으로 조직된 임시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련 군정당국의 지원 아래 1946년초에 이르러서는 김일성은 형식상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소련군 당국은 북한 공산화의 제2단계로서 1945년 8월 북한 전역에 걸친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함에 있어,[12] 민족세력의 거두인 曺晩植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다. 소련군 치스차코프 사령관은 8월 26일 曺晩植 지도하의 「평남건국준비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면서 광범위한 세력을 망라한 조직체의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소련군 로마넨코 소장의 주관하에 좌우연합체로서 「평남인민정치위원회」를 좌우의 같은 비율로[13] 조직하고, 그 위원장에 曺晩植을 추대하였으니, 이것이 북한의 공산화 제2단계였다.

제3단계는 1945년 10월 28일 「북조선5도행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국장은 국내파 공산당원이[14], 부국장은 소련파가 장악함으로써 공산당이 실권을 장악하는 사이비 연

12) 金甲喆(1977), 「北韓 정치이데올로기 分析」, 서향각, pp. 36~42.

13) 위원 32명의 실질적 구성 비율은 15대 17로 좌익이 2명 더 많았다.

14) 국내파는 일제 식민지 통치기간 중 한반도에서 비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헌영, 이승엽 등이나 1953~56년 기간 중 숙청의 희생물이 되었다.

립정부 형성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다. 10월 10~13일에는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를 비밀리에 소집하여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을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입각한 최초의 조직임을 북한은 공식화하고 있다.[15]

또한 소련군 당국은 북한이 공산당만이 아닌 복수정당제도를 갖춘 민주사회임을 선전하고, 도시의 각계 각층의 인사를 포섭하기 위하여 1945년 11월 3일 曺晩植을 당수로 하는 「조선민주당」을 창건하였는데, 여기에도 소련군 당국은 공산당의 고급 간부인 최용건을 부당수에, 김책을 당서기장 겸 정치부장직으로 침투시켰다. 『조선민주당』은 방대한 기독교 세력을 바탕으로 북한 전지역에 영향력을 급속히 확장해 나가자, 공산당은 「조선민주당」의 와해 공작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조선민주당에 대한 탄압이 북한 공산화 제3단계의 본격적인 내용이었다.

1946년 1월 5일 소련은 曺晩植을 설득하여 4대국 신탁통치안을 지지하도록 공작하였으나 실패하자 그를 연금하였는데, 이것이 북한 공산화 제4단계의 시작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2월 5일 「북조선 민주당 열성자대회」를 개최, 당을 개편한다는 구실로 공산당원을 대거 입당시킨 뒤 2월 24일에는 최용건이 당수가 되니 「조선민주당」은 공산당의 우당으로 전락해 버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945년 2월 8일에는 현 북한 공산정권의 모체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로써 북한에 레닌주의적 일당 권력체제가 확립되었다. 3월 5일에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지주계급 및 비공산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였고, 8월 10일에는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를 실시하였으며, 8월 28일 「북조선 공산당」이 연안파 세력[16] 중심의 「조선민주당」을 흡수 합당하여 「북조선 로동당」을 만들고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완성함으로써 마침내 북한 소비에트화 제4단계는 일단락 짓

15)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科學院 歷史硏究所(1959), 「朝鮮通史」, 學友書房, pp. 16~17 ; 金甲喆 외(1993), 「北韓學槪論」, 文佑社, p. 43에서 재인용.

16) 연안파는 1920~30년대에 조국을 떠나 당시 소련과 더불어 중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로 일제 탄압이 심해지자 중국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연안에 모이게 되었다. 윤공흠, 김두봉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나 이들은 1956~58년 기간 중 숙청되었다.

게 되었다.

일당독재체제 형성에 의한 소비에트화는 東歐에서는 대체로 1950년에 완성되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되어 불과 1년만에 완성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역사적 조건이 東歐와는 달리 순수한 식민지였기 때문이었다. 즉 통치의 경험이 없고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소련의 예속화에 대한 개인적 불평과 민족적 울분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이라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정세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또한 사회 민주주의 조직이나 민족 세력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항 없이 노동자나 농민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리한 조건 아래서 정권 장악의 기반을 구축한 김일성은 1946년 11월 3일에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흑백함투표로 실시하여 인민위원을 선출하고, 1947년 2월 21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그후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김일성은 7월 9일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 그동안 토의되었던 헌법초안에 기초한 정부 수립을 위해 8월 25일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로동당은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였는데, 남한에서는 남로당이 비밀지하선거를 실시하여 1,080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고, 이들 중 997명이 8월 21~26일에 해주시에 모여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인구 5만명에 1명씩의 비율로 남한측 몫인 360명의 대의원을 뽑았다.[17] 북한에서도 8월 25일에 99.97% 참가에 98.49%의 찬성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12명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전 한국적인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형식 아래 비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뽑힌 572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가 1948년 9월 2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9월 8일에 헌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여 선포하고 그 다음날인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오늘의 북한정권을 수립하였다.

17) 이종석(1995), 「조선로동당 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pp. 205~206.

4)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受容

소련군 점령이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공산혁명의 주·객관적인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북한정권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름을 빌어 김일성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해 왔다.

조선로동당은 그 전신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결성(1945. 10) 이래 주체사상이 고창되는 1960년대 중반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자신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아왔다. 金日成은 1948년 3월 로동당 2차대회의 당중앙위원회 사업결산보고서에서 레닌과 스탈린이 지도해 온 볼세비키당 노선을 선택하고 스탈린주의 모델 수용이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시키는 가장 유력한 사업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약소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존중하며 옹호하는 위대한 레닌 스탈린당이 지도하는 소련군은 …… 간부를 옳게 선택한다는 것을 볼세비키당의 위대한 영도자인 스탈린 대원수가 말씀하신 바와같이 부장이나 부부장을 선발하여, 당원들과 당간부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선전사업과 당원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사상적으로 결속시키는 가장 유력한 무기중의 하나입니다."[1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조선로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시종일관 자신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 전까지 남북한의 통일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통일전선이 강조되던 해방공간에서 조선로동당은 전술적인 차원에서 대외적으로는 스스로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으로 표방하지 않았다.[19] 특히 1946년 8월에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만들어진 「북조선로동당」은 반제반공

18) 朴彩鎔(1994), 「北韓主體思想硏究」, 世界아기宣敎出版局, p. 98에서 재인용.
19) 내부적으로 당원들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학습은 꾸준히 강조되었다.

건 개혁이라는 당면과제와 통일전선에 대한 강조[20] 속에서 자신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과는 거리가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 정도로 위치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대회(1946. 8. 30)에서 채택한 규약 제2조에서 자신의 목적을 "조선근로대중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로서 조선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부강한 민주주의적 조선독립국가 건설과 근로대중의 정치, 경제 및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에 있다고 밝힌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21]

이러한 사실은 북조선로동당의 강령과 규약이 당시 정세에 따른 전술적 내용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당의 실제 성격이 공산당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북조선로동당은 당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시대적 조건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라는 본연의 자신의 성격을 위장한 채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북한의 공산화를 주도한 것이다.

조선로동당에게 있어 한국전쟁은 자신이 지도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치를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조선로동당은 드디어 자신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라고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전쟁이 휴전으로 봉합되어 장기적 분단으로 나아가자 통일전선의 위상도 현저히 강화되었다.

조선로동당이 공산당으로서의 성격을 더 분명히 하기 시작한 것은 1951년부터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은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1951년 11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을 "선진적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인민의 선봉대로서 전투적 혁명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새 형의 당"이라고 규정함으로써[22] 그동안 사용을 자제해왔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김일성은 이미 전쟁 전부터 내부적으로 당원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 학습을 독려하고 있었으나 통일전선 구축을 통한 통일에의 열망 때문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20) 북조선로동당은 내용적으로는 북한사회를 이끌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사회를 지도하는 역량이 통일전선에 기초해서 성립된 인민정권으로 표방하였다.

21) 국사편찬위원회(1982), 「북한 관계 사료집1」, p. 467 ; 이종석(1995), 전게서 p. 68에서 재인용.

22) 한길사 편(1994), 「북한의 정치와 사회2」, 한길사, p.141.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치를 표면에 내건 것이었다. 당은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음으로써[23]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의 공식 정치이념으로 수용하였다.

북한의 정권 수립과 건설에 이념적 틀이 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소련의 경험에 의거 스탈린에 의하여 변형된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였다. 그러나 소련의 여건과는 다른 북한지역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다 보니 상당한 시행착오와 정책 변경이 거듭되어 주기적으로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를 합리화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마르크스주의를 변형시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개조한 경우나 중국이 毛澤東思想을 창안한 경우처럼 북한에서도 자신들의 특수한 실정에 맞게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를 '朝鮮化'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2. 소련의 影響力과 社會主義 建設過程

북한 지역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은 점령 초기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때까지 상호 연관된 두 단계, 즉 친소 공산 정권의 수립과 이 정권에 대한 철저한 위성국화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소련의 정책과 힘은 북한에서의 국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는 두번째 단계－1948년 9월에 수립된 북한정권에 대하여 소련에의 충성을 유지시키는 과정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 소련 軍政當局의 基本路線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의 통제 밑에 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책수립에 관여했던 소련의 군인들과 외교관들에게는 소련의 스탈린 체제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23) 「로동신문」, 1954년 4월 29일.

최고의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지구상 모든 곳에서 이를 가능한한 빨리 실현하는 것이 인민의 번영을 실현하는 지름길로 믿었다. 또한 지역 공산주의자들도 소련의 모든 정치·사회 조직을 무조건 모범적이고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고 스탈린식의 정치체계 및 경제제도의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模寫하였다.[29]

소련 군정당국은 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 마르크스주의적 전제들에 의지하여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자신들에 의하여 통제되는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잘 짜여진 정책들을 집행하였다. 그들은 북한에 스탈린식 공산주의 체제를 移殖시키기 위해 조건에 부합되는 공산주의자를 선정하여[30] 민족적 지도자로 부각시킨 후, 통일전선을 토대로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일련의 공산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소련 군정당국의 기본 노선은 군대가 일단 한반도에 진주한 이상 38도선 이북 지역에 우선 소비에트 질서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회체제를 재편성하여 그것을 토대로 공산화하는 것이었다.[31]

2) 軍政以後 소련의 對北韓 統制體制

소련의 대북한 통제체제는 복잡하고 정교하였으며,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그 하나는 북한이 여러 면에서 독립국가라는 명목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정치형태와 정책이 소련의 것과 동일하게 하는 장치, 즉 북한체제의 성격, 공산진영과의 단결의 표시, 통일의 노력, 그리고 소련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일치성 유지를 위한 서약 등을 요청하는 것이었다.[3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29) 란코프(1995), 전게서, pp. 63~64.

30) 스탈린은 점령지역의 공산화를 위하여 지도적 인물을 선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1 민족주의적 성향의 토착 공산주의자 배제, 2 적대자나 추종자가 없는 자, 3 자신의 밑에서 정치훈련을 받고 무조건 복종하는 자 4 가급적 나이가 젊은 자 등이었다. 金甲喆·高性煜(1988), 전게서, pp. 44~45.

31) 徐禧洙(1989), "蘇軍政과 北韓政權 樹立", 「論文集」, 第25輯, 第一號, 釜山教育大學, pp. 65~66.

32) 金甲喆 외(1993), 전게서, pp. 51~53.

북한에 대한 소련의 통제는 세 가지 주요 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북한내의 소련정부대행기관들과 소련 관료들, 둘째는 소련의 시민이거나 소련 거주자들이었던 북한 지도자들, 셋째는 소련 정책에 대한 북한의 추종을 강요하는 제조치들이었다.

북한에 있어서의 소련의 최고통제기관은 크레믈린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소련대사가 이끄는「소련사절단」이었다. 당시 평양주재 소련 대사는 슈티코프였으며, 그는 1945～47년 북한에서 사실상 최고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33] 그는 소련대사관 참모진의 보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참모진은 소련 정부기관과 군사, 문화, 산업, 농업, 삼림, 공보, 교통, 체신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령계통을 보면, 크레믈린에서 받은 지령은 소련대사관에서 직접 1.북한내 소련사절단 소속 소련정부대행기관으로, 2.여기에서 북한정부의 각 부처에 배치되어 있는 소련관리에게 하달되고, 3.노동당과 정부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인2세들에게 파급되었다. 북한에서 공작하고 있는 소련정부기관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국가안보위원회(KGB) 등 다섯 개의 소련정부의 省(部)의 지부들도 있었다.[34]

소련사절단은 소위「고문관」이라는 참모진을 갖고 있었다. 이들 고문관들은 북한내각의 각성 및 기타 정부기관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입명된 장교들, 정부 하급기관과 산업분야에 배치된 기술자들, 그리고 군에 배속된 군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몇 명의 소련 정치고문관들은 내각에 배치되어 기본정책 결정을 검토하는 임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한 사람의 정치적인 책임을 맡은 소련인이 각 부처에 배속되었다. 예를 들면 내무성에 배속된 고문관은 소련군정 기간 동안 소련비밀경찰의 책임자인 보디아긴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전문가는 문교성을, 몇 명의 장교들은「민족보위성」에 배속되어 있었다. 어떤 소련관리는「국가계획위원회」를 지도하였으며, 또 어떤 자들은 김일성대학, 공과대학 또는 군관학교에서 교육을 감독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33) 란코프(1955), 전게서, p. 59.

34) U. S. Department of State(1961), *North Korea :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Washington D. C. : G. P. O., p. 100.

35) 상게서, p. 101.

북한 권력조직 내에는 약 2백개의 중요 부서를 한국계 소련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35] 이들 간부들은 한국인으로 행세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조·소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이러한 이중 국적자들은 북한에 대한 소련 지배의 핵심적인 추진력이 되었다. 소련은 한국인 2세들을 거의 모든 당·정부 기관에 침투시켜 보통 부위원장의 지위에 배치하였다. 특히 내무성, 정치보위부 등 중요 부서에는 부책임자로서 두 사람 이상의 한인 2세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김일성과 그의 부하들로 구성된 이른바 「빨치산파」들은 한 때 소련군으로 복무하며 5년쯤은 시베리아에 거주한 바 있으나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들도 소련 군정당국의 도움으로 1945~46년간 북한의 고위직에 앉게 되었다. 김일성 일파는 나중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지만 1950년도 초기에만 해도 공업상, 내무상 및 부상, 민족보위상, 야전군사령관, 북한군 참모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계이든 아니든 간에 소련 시민권을 가진 모든 관리들은 그들이 북한에 체재하는 기간 중에도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유지시킴으로써 소련 공산당의 명령에 충실하도록 얽매어 놓았고, 한국의 환경에 의해서 한국인화 되기 쉬운 한국인 2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를 가하였다. 소련의 감독 권한은 갖가지 정치적 및 심리적 조작에 의하여 신장되어 갔다. 이러한 조작에는 공식 협정, 엄격한 준종교적 훈련의 부과, 북한 대외 관계의 영구적 독점 획책,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의 교육에 대한 많은 영향력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3) 社會主義 建設 : 民主(共產化) 改革

해방 이후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민족주의 세력은 물론 북한 지역 일반 주민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주'라는 말을 두루 사용하였다. 그들은 공산화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도 '민주',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

35) 상게서, p. 101.

였는데 토지개혁 법령, 노동법, 남녀평등법 등의 법령에도 모두 '민주개혁'이라는 미명이 붙여진 채 개혁이 추진되었다.

(1) 土地改革과 産業國有化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당면 과제 중에서도, 특히 봉건적인 토지 소유제도와 그 관계를 철폐하기 위하여 토재개혁을 제일 먼저 단행하였다. 토지개혁은 봉건적 잔재를 청산한다는 목적 아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내걸고 실사하였는데, 그 궁극적 목적은 향후 농업의 집단화를 이루는 데 있었고,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단계에서 농민문제는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공산주의 혁명이론의 실천에 있었다.

1946년 3월 5일「토지개혁 법령」이 공포되고 이날부터 임시인민위원회의 주관 아래 토지개혁에 착수했다. 이 법령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6]

1. 일본인들과 민족반역자가 소유해 온 토지, 소작인에 의해 경작되던 토지, 5정보를 넘는 조선인 지주와 종교단체가 소유해 온 토지를 모두 몰수하여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빈농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
2. 토지몰수의 대상이 된 지주에 대한 모든 부채를 취소하며, 지주가 소유했던 농기구, 주택 및 역축 등을 농민에게 무상 분배한다.
3.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의 매매, 저당 및 임대를 모두 금지한다.

이와 같은 법령하에 9만 6천여명의 소작농민과 빈농으로 구성된 1만 5천의 농촌위원회가 토지개혁을 주도·집행하고 소련점령군의 역할은 추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되기도 하나,[37] 사실상 개혁은 소련 군정당국 및 소련군정기구와의 긴밀한 연계하에 집행되었다.[38]

이 법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혁은 1947년 3월 이전까지 완수되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20일간에 걸쳐 전격적으로 끝났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의 총경지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6) 고승효(1993),「북한경제의 이해」, 양재성 역(1993), 평민사, p. 55.
37) 강정구(1994), "북한정치의 구조와 변화", 장을병 외(1994),「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한울아카데미, p. 303.
38) 란코프(1995), 전게서, p. 87.

적의 53%에 해당하는 약 135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어 이 중에서 약 98만 정보의 토지를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빈농들에게 분배됐다.[39] 이렇게 해서 북한 사회에서 지주계급이 완전히 소멸됐다.

(2) 主要產業의 國有化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土地改革과 더불어 主要產業을 國有化하는 과업이 전개되었다. 이 중요한 시책도 비록 북한 정권의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련군정에 의하여 준비되었다.[40]

북한정권은 1946년 8월 10일「산업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이 법령에 의해 해방전 일본인 소유는 물론 친일파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산업·상업·문화 시설이 무상으로 몰수되어 국유화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라는 상황에서 절대다수의 대·중기업은 일본 정부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사실상 모든 대기업과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국유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북한 당국은 생산요소, 노동시장과 여신(credit)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잔재를 말소해 갔다. 이 결과 남북한의 경제구조는 점점 더 이질화되었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유지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경제 기반으로서의 민주개혁이 완성됨으로써 1947년에서 1950년에 걸쳐 平和建設期間으로 책정하고 두 번의 1개년 계획(1947, 1948)과 한번의 2개년계획(1949~1950)을 실시하는 등 계획경제로 전환되었다.[41] 1947년 12월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 독자적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한의 경제는 더욱 단절되게 되었다.

(3) 노동법령과 남녀평등권 법령의 실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의 뒤를 이어 1946년 6월 24일「북조선 로동

39) Koo, Bon-Hak(1992), *Political Economy Self-Reliance ;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p. 46.
40) 란코프(1995), 전게서, p. 87.

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은 총 26조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1 노동자·사무원들에게 8시간 노동제, 2 14세 미만 유년 노동 금지, 3 남·녀 노동자의 동일임금제, 4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제, 5 유급휴가제, 건강보호대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42]

노동자나 사무원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권이나 자유시위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

북한 정권은 노동법령을 공포한 목적에 대해서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에서 일제 잔재인 노동력착취, 혹사, 천대 등을 소탕하며, 노동규율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946년 6월 2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확대회의는 "……아직도 제국주의적 착취제도의 잔여와 일제가 부식한 봉건적 착취관계의 잔재들이 완전히 숙청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노동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물질적 생활수준을 제고 향상시킴으로써 제국주의 식민지적 착취의 잔재를 근멸하고 민주주의 노동 건국과 노동규율의 실현을 보게 하는 것이 노동법령의 근본적 임무인 것이다."[43]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법령 실시가 마치 북한정권이 노동계급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표면상으로 보이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며 사회주의 건설에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데 불과한 것이었다. 이는 그후 북한에서 노동법령이 그 내용대로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한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7월 30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4일 이 법령 「시행세칙」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1 모든 생활에서 남녀 평등권 보장, 2 남녀 동등한 노동·교육 권리, 4 자유결혼, 자유 이혼 권리, 5 남녀 동등한 재산 및 토지상속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 법령을 공포함에 있어서도 그 전문에 "장구한 봉건적 인

41) Koo, Bon-Hak(1992), *op. cit.*, p.60.

42) 조선중앙통신사(1949), 「조선중앙연감」, p. 74.

43) 김일성(1949),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1권, p. 122.

습과 일본제국주의의 착취에 의해 무권리 상태에서 2중 3중으로 압박을 받아 온 조선 여성을 정치, 경제, 문화, 가정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하고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여 예외없이 봉건잔재의 청산을 강조하였는데,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동원하고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공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전개됐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I. 主體思想의 形成 및 變化過程

1. 主體 提起 背景과 主體思想의 體系化 過程

主體思想은 金日成이 1955년 이래 자신의 권력에 대한 권위구조의 정당화와 북한 사회주의체제 건설에 대한 신념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첨가시키는 과정에서 발전했고, 1980년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된 김정일이 김일성에 의해 주창된 복합적인 명제들을 정리하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됐다.

김정일은 그의 논문에서 김일성이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었으며 인류역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의 시대를 개척하시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44] 또한 그는 혁명의 지도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어 나올 수 없으며 시대적, 역사적 조건에 기초하여 혁명투쟁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고 오랜 기간의 투쟁 속에서 진리성이 검증되어 내용이 풍부화되므로써 전일적인 사상이론체계로 된다고 말하였다.[45] 이러한 논거에서 그는 1930년 만주 길림성 소재 장춘현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밝혔고, 그 뒤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였다.[46]

이처럼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을 18세(1930년)의 나이에 불과한 김일성이 지도했다는 항일무장투쟁기까지 소급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사상이 언어로 표현되고 이론화되기까지에는 사상적 斷礎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것

4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김일성 70회 생일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21일)", 하수도(1980), 「김일성 사상비판 : 유물론과 주체사상」, 한백린 역(1988), 백두, p. 288.

45) 상게서, p. 291.

46) 상게서, pp. 290~291.

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나, 마치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이미 주체사상이 천명되고 주체노선이 강조됐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47] 한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나 반제청년동맹은 가공단체로서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김일성의 심리적 열등감 때문에 조작된 것이었으며 그가 주도했다고 하는 카륜회의도 허구라는 평가가 있다.[48]

그러면 주체사상의 기원이 김정일에 의해서 왜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주장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조선혁명에 대한 독자적 사상이 毛澤東의 中國式 사회주의를 모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시기적으로 같은 시대에 형성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9]

「주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였다.[50] 이 연설은 주로 사상사업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면서 소련파, 연안파 등의 과오를 주체적인 기준에서 비판했는데, 연설 내용에 당시 북한이 「사상에서의 주체」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쏘련공산당의 력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중국혁명의 력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연

47) 이종석(1995), 전게서, p. 66.
48) 허동찬(1989), 「김일성 주체사상의 올바른 이해」, 원일정보, pp. 23~24.
49) 金聖哲(1993),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研究報告書 93-18, 民族統一研究院, p. 12.
50) 남한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1955년 12월 28일 사상에서의 주체 제기를 주체사상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구하는 것이나 다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력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쏘련식으로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51]

당시 북한으로서는 1953년 휴전 이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경제를 복구하고, 아직까지 확고하다고 볼 수 없는 김일성의 당내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였다. 게다가 당시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상황이 각 공산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주체」가 처음 등장한 1955년 말이라는 시기는 소련의 심한 내정간섭과 거기에 편승한 당내 파벌투쟁, 전쟁으로 인한 국내경제 문제 등 북한정권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였다.

이런 여건에서 김일성은「주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1956년「8월 종파사건」을 전후해서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하면서 김일성중심체제에 반대하던 자들을 당의 단결을 파괴하는 반당종파분자, 수정주의자,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 대국맹종주의자, 그리고 민족허무주의자란 낙인을 씌워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제거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반대파와의 권력투쟁에서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상적 무기로서「주체」를 내세웠던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러한 대내적 계기는 후르시쵸프의 스탈린 비판을 거치면서 심화된 중·소이념분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이나는 대외적 계기와 연관을 맺고 있었다. 즉 국제환경이 동서간의 평화공존과 국제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변하게 되자 스탈린주의를 따르던 김일성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사회주의 진영내부와 미소관계의 변화로 외부영향이 북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제상황도「주체」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51) 김일성(1980),「김일성 저작집」, 제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pp. 467~468.

또한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어느 한 쪽에의 편향 및 경사에서 오는 불이익과 피해를 모면하기 위한 노선설정의 필요에서 「주체」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치상황적인 배경에서 1955년 12월 「사상에서의 주체」를 주창한 이후, 1956년에는 「경제에서 자립」을, 1957년에는 「정치에서의 자주」를,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주창하였다.[52] 이어서 1966년에는 「외교에서의 자주」를 당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거론하면서 점차 「주체」개념을 각 부분별로 구체화하던 중, 마침내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새로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바로 당의 유일사상으로 전환되는 단계를 밟게 되었다. 더욱이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과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의 관련조항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언급을 삭제함으로써 유일사상체계로서의 독창성을 내세우게 되었다.

1960년대의 복잡한 대외환경에 대응해 나가면서 점차 그 체계를 갖추게된 주체사상은 1965년 4월, 반둥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던 김일성의 연설에서 주체사상은 체계화되기 시작하는데, 주체확립에 관한 이른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4개 노선 천명이 그 내용이다.[5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후 김일성은 1966년 8월 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로동신문」의 논설에서 당의 자주노선을 천명하게 되고, 이러한 당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은 1967년 1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 이르러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국가활동의 당면과업인 공화국 정부 10대 정강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의 구현을 국가 모든 부분의 기준으로 제기하게 된다.

한편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52) 주체사상의 4개 노선(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제기 시기에 대해서는 朴彩鎔(1994), 전게서, pp. 113~118을 참조.

53) 김일성(1982), 「김일성 저작집」, 제1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pp. 278~329.

기존인식에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라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1968년경부터 본격화되었다.

1968년 8월에 개최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을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54]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1969년의 사회과학자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만이 맑스-레닌주의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55]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경향은 1970년 개최된 제5차 당대회를 통해 더욱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1970년대 들어서 주체사상의 체계화 작업은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1972년부터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56]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상이 점차 보편적 이론으로 체계화되어 가게 된다.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계승보다는 독창성이 강조된 「김일성주의」로 불리워지게 되는데[57] 이는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개인숭배현상[58]의 이론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70년대의 주체사상 체계화 작업은 주체사상을 단순한 노선 차원의 것이 아니라 철학적 원리를 가진 하나의 사상으로 만드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이후 1982년에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킨 것이며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불분명하게 다루어지던 철학적 원리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입장에서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기초한 사회역사원리와 지도적 원칙이 제시되어 마치 김일성의 거의 모든 것을 하나의 체계

54) 「로동신문」, 1968년 8월 30일.
55) 「로동신문」, 1969년 4월 29일.
56) 김일성(1984), 「김일성 저작집」, 제27권, 조선로동당출판사, pp. 340~391.
57) 1973년부터 통일혁명당이나 제일조총련에서 「김일성주의」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종석(1995), 전게서, p. 89를 참조.
58) 개인숭배현상의 내용 및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상게서, pp. 296~315를 참조.

속에 담을 수 있는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체계화 작업은 조선로동당 창건 40주년을 기념하여 1985년에 발행된「위대한 주체사상총서」(전10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을 정리하면 주체사상은 1955년에「사상에서의 주체」라는 형태로 처음 제시되고, 1970년대에 철학적 원리가 도입된 후, 1982년의 김정일에 의해 철학적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이 다듬어지면서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인 이른바「주체사상의 전일적 체계」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

최초의 태동시기

「근본목적」 당내종파 분자숙청 ← 김일성의 연설(55. 12. 28)「당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자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에 대하여」 → 「근본목적」 김일성 독재정권강화

↓ 이후

10여년에 걸쳐 비체계적으로 산만하게 강조

장 소	일 시	강 조 내 용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56. 12. 11	경제에서의 자립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57. 12. 5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62. 12. 10	국방에서의 자위
당 대표자 회의	1966. 10. 5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1965년 4월14일 ← 인도네시아에서 김일성의 연설「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 → 주체사상으로 최초표현

↓

국내외적 환경변화 ← 유일사상으로서의 체계확립 과정 → 대내외 통치명분

양형섭·황장엽등 당이론가와 조선과학원의 어용학자가 이론체계화

↓ 정식화

1970. 11. 12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 당규약개정 내용에 포함
1972. 12월	조선사회주의헌법개정안에 주체사상 강조
1980. 10월	조선로동당 6차당대회에서 김일성의 통치이데올로기화
1982. 3. 21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의 체계화

2. 主體思想의 理論的 틀

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서 현재 북한사회에서 당과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 운영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59]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혹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규정된다.[60]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는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시원문제가 선행철학인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유물론적으로 밝혀지기 위해서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고 주장한다.[61] 그는 이러한 근거에서 "사회를 물질적 조건을 위주로 하여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의 발전 과정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으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온갖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는 사회"라고 주장한다.[62] 바로 이것이 주체사상의 이론적 핵심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오늘날 북한에서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즉 김일성주의의 진수로 간주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9) 1980년 10월에 채택된 제6차 당대회의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과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 각각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전문)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聯合通信(1995), 「북한50년」, 연합통신사, p. 406, p.381.

60) 김일성(1972),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2. 9. 17)", 고대출판부편, 「'북한'연구자료집」, 제8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p. 511 ; 이종석(1995), 전게서, p. 30에서 재인용. 이 종석은 이 개념 규정이 1972년 이래 기본적인 개념규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61) 김정일(1982), "주체사상에 대하여", 하수도(1988), 전게서, p. 328.

62) 김정일(1992),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 2. 4.

주체사상의 기본체계는 김정일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63] 따라서 이 논문에 기초해서 주체사상의 이론적 틀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제사상의 철학상의 근본 특징은 '인간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이라고 할 수 있

63) 이 논문은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대표적인 논문으로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후의 노작이라고 찬양받고 있으며, 주체사상에 대한 모든 논의는 이 논문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질 만큼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인용되는 수록문헌은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하수도(1988), 전게서, pp. 287~335에 근거하며, 이 절에서 별도의 각주가 없는 인용문들은 모두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논문의 항목들을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1. 주체사상의 창시.
2.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3.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1) 인민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이다.
   2) 인류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3)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4)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4.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1)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1) 사상에서의 주체.
      (2) 정치에서의 자주.
      (3) 경제에서의 자립.
      (4) 국방에서의 자위.
   2)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1)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2) 실정에 맞게 행하는 방법.
   3)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 쥐어야 한다.
      (1) 사상개조 선행
      (2) 정치활동 선행
5.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

다.[64]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는 주체사상은, 인간은 현실세계의 모든 것, 즉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철학적 원리에서 김정일은 마르크스의 철학에 대하여 "종래의 철학적 세계관에서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물론의 원리와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변증법의 원리는 밝혔으나, 이러한 철학적 세계관으로는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은 밝힐 수 있어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할 수 없다"[65]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유물론적 변증법이 세계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것을 해명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질인 인간이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밝혀주어야 한다."[66]는 것이다. 김정일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만이 물질적 세계의 일반적 특징을 밝혀주는 원리를 포함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주체의 세계관은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심오하게 포괄적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67]이라고 전제하고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가 마르크스주의 철학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주체사상의 전체계를 규정하는 두 개의 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68] 첫번째 테제는 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것으로서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철학적 원리로부터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한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러

64) 鄭祐坤(1989), "金日成 '主體思想'에 관한 硏究 : 「朝鮮勞動黨」의 革命路線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慶南大學校大學院, p. 38.

65) 김정일(1986),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7년 4호, p. 5.

66) 상게서, p. 5.

67) 상게서, p. 6.

한 철학적 원리는 인간을 위한 철학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취급받는가를 상기해 보면 논리의 허구성을 면치 못한다.[69]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주로 물질세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는 문제, 즉 '물질과 의식 중에 어느 것이 선차적인가'라는 문제와 '인간은 그 물질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 반하여, 소위 '주체철학'은 인간을 모든 사고의 중심에 놓고 인간과 세계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철학의 근본 문제로 삼으며, 세계개조자로서 인간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철학의 임무는 인간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70]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체사상의 근본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이란 구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간 일반이라는 점이다. 현실사회에는 추상적인 인간 일반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7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두번째 테제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특성에 의해서 사람은 세계에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사회적 생명'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 정의되며,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 규정된다.

그렇지만 철학적 원리는 인간에 대한 본질, 주체를 혁명의 주체로 대체시키고 수령에 복종하는 인간형의 창출과 대중동원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김정일은 이

68) 이종석(1995), 전게서, pp. 31~32.

69) 이영일(1987), "「주체사상」의 체계와 그 비판," 양호민 외(1992), 「북한 사회의 재인식」, 한울, pp. 62~63.

70) 리상걸(1983),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설명」, 사회과학출판사, pp. 43~50.

71) 하수도(1988), 전게서, p. 21.

러한 논리를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 그리하여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표현되어야 한다."[72]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의 철학은 김정일의 주장대로 마르크스 철학에 비해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역사와 현실에 어느정도 근거를 둔 것임에 비하여 주체사상의 세계관은 역사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론적 통속화에 이르고 있다.[73] 북한이 인간중심의 철학을 강조하는 근본이유는 북한인민들을 노동당의 혁명노선인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순종하는 인간형을 창출하는 데 있으며,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규정하는 것도 레닌주의의 모방에 불과한 것일 뿐, 새로운 이론적 발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74]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주체사상의 두번째 구성원리인 사회역사 원리는 '사람'이라는 어휘를 여기서부터는 "인민대중"으로 서술하면서 "인민대중의 사회적 운동과 혁명운동의 근본 원리를 천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역사의 본질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사"이며, 역사의 성격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으로서 이 역사를 추진하는 힘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체사관은 인류사를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보는 역사관이라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인류사 발전의 본질을 세계 정신의 자기 인식 역사로, 인간 자의식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2) 高性俊(1988),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에 관한 硏究," 政治學博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pp. 88~89. 고성준은 이러한 논리는 나찌즘의 '指導者論'과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73) 상게논문, p. 119.

74) 신인철(1994), 「북한주체철학 연구」, 나남, pp. 155~160.

발전 과정으로 봄으로써, 인간의 생물학적, 자연적 본성의 발현 과정으로 보는 관념론적인 사관과는 정반대되는 사관이며, 인류사를 생산방식 교체의 역사로, 계급 투쟁의 역사로 고찰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을 한 단계 발전"[75]시켜 주체사상은 "인류 발전사를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사로 정식화했다."[76]고 정의하고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 논문의 사회역사적 원리에서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점과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고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입장과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서 기초적인 문제로 보고, 근로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체,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인민대중을 제외한 계층은 역사의 주체가 될수 없으며 역사발전을 저해하는 반동 계급으로 혁명의 타도 대상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역사 발전의 주체를 인민대중이라고 하면서도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영도와 수령의 영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당과 김일성 부자의 독재를 합리화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정일 논문에서는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노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 영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 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 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역사적 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투쟁으로 "낡은 사회제도를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수립"해야 하며, 사회 역사적 운동의 추동력이 "자주적 사상의식"이기 때문에 "육체기관 중 가장 발전된 뇌수의

75) 리상걸(1983), 전게서, pp. 9~11.
76) 상게서, p. 11.

고급기능이며,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수하는 의식을 혁명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발동"[77]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식화에 선차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의식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근로인민대중과 반동적 착취 계급간의 첨예한 투쟁의 역사"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 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인류 역사 발전에서의 각종 계급투쟁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를 인류 사회 역사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최후의 마지막 투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사회 타도를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설교하고 있다.

이같은 주체사상의 사회 역사관은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역사의 본질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사"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인류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고찰한 마르크수주의의 역사관을 발전시킨 획기적인 발견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김정일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착취계급은 역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되며, 계급사회의 전 노정은 역사의 창조자와 반동자간의… 첨예한 투쟁의 역사"라고 하여, 그들 스스로도 "인류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사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역사의 본질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사"라는 규정은 계급사회 이후에 도래한다는 무계급 사회까지(즉 공산주의 사회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명제라고 변명할 수도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대중을 동원하는 추진이론이 바로 "전복된 계급과의 투쟁론"[78]이라는 것은 엄연

77) 조선로동당출판사(1981), 「주체사상 해설서」, p. 13.
78) 김일성(1975), 「세계혁명이론」, 조선로동당출판사, p. 176.

한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새로 형성된 특권 계층과 피억압계층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회주의 사회는 무계급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첫 단계로서 전복된 체제와 계급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이고, 아직 지구상에 생겨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사회주의 사회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변명을 내세울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발전의 원천이 대립물간의 투쟁'이라는 유물 변증법의 원리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대상이 자연현상일 수 밖에 없을 때(그런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주체사상의 원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게 된다.

둘째로 유념해야 할 문제점은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사회 역사적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다할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그를 옳게 운영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수령의 영도가 있어야만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여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인민대중의 주체"를 "수령의 주체"로 대치시키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사회발전에서 현명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고 때로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어느 한 개인(수령)을 절대적으로 우상화, 신격화하여 대중에게 무조건 복종과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최고의 영도자"이므로 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하며, 그의 진수를 계승한 후계자에게도 그러해야 한다는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으로 되고 있어 매우 모순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역사의 주체이며 창조자인 "인민대중"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며, 그의 "유일사상"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수령에게 의탁"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강요된 이론이야말로 역사 원동력의 핵심이 결국 "수령"이 되어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개척자라는 명제를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

3) 주체사상의 지도 원칙

주체사상의 세번째 구성요소인 지도원칙에서는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으로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리"를 밝힌 것이 바로 이 지도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체사상을 잘 관철하려면 바로 이 지도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자주적 입장 견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도원칙에서 우선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나라의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며,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것에 정통하며,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갖고 사대주의를 반대 배격해야 한다."[79]고 규정짓고 있다.

79) 조선로동당출판사(1981), 전게서, p. 14.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정치에서 자주적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기인민의 힘에 의거한 정치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하고…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꾸려야 하며…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노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는 한편… 대외 관계에도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수하고 다방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발전된 경제를 이룩하며, 자체의 원료·연료 기지를 확보하고,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고 민족 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경제에서의 자립을 위해서는 또한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해야 하며, 국제적인 경제 협조,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 신흥세력 나라들과의 경제 기술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음으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은 "자위적 무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며, "전 민족적 전 국가적 방위체제를 구축"하며,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발양"하며, "자체의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후방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4대 요소의 함수관계는 사상에서 주체의 표현이 정치에서의 자주로 나타나며, 정치에서의 자주가 경제에서의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상호 보장하고 담보하는 것이라고 한다.

(2) 창조적 방법 구현

창조적 방법을 구현한다는 것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창조력을 발양시

키며 구체적 실정에 맞도록 창조적 지혜를 발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창조적 방법 구현에서는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 여부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려면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교양하고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과 그들의 창의력을 발동하는 정치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 운동은 모든 문제를 변화 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풀어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옳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나라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 주체사상이 북한의 제반 현실과 실정에 부합된 가장 창조적 지도사상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원칙의 4대요소는 어느 민족이건 자주 독립을 지향하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내세우고 있는 원칙들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독창적인 것도 결코 아닌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리고 모든 민족국가는 자주독립을 수호하고 그 사회의 물질적 부를 풍부히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그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참여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를 위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각자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하도록 교양하고 발동하는 일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같이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주체사상"이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체제 유지의 근본 논리인 동시에, 혁명 전술·전략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부단혁명"의 지침이며 방법론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80]

80) 李恒九(1989), 「金日成 主體思想의 本質」, 현실촛점, p. 112.

이상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틀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주체사상의 기본체계

<table>
<tr><td>원리</td><td>분석
(주체)
단위</td><td colspan="6">테 제</td></tr>
<tr><td rowspan="2">철학적
원리</td><td rowspan="2">인간</td><td>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td><td colspan="5">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적 특성</td></tr>
<tr><td>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td><td>자주성</td><td colspan="2">창조성</td><td colspan="2">의식성</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사회
역사
원리</td><td>인민
대중</td><td>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td><td>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td><td colspan="2">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td><td colspan="2">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지도적
원칙</td><td rowspan="2">정치
생활
단위
(당,
국가
등)</td><td colspan="2" rowspan="2">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td><td colspan="2" rowspan="2">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td><td colspan="2" rowspan="2">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td></tr>
<tr></tr>
<tr><td>사상
에서
주체</td><td>정치
에서
자주</td><td>경제
에서
자립</td><td>국방
에서
자위</td><td>인민
대중에
의거하
는방법</td><td>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td><td>사상
개조
선행</td><td>정치
사업
선행</td></tr>
</table>

〈보기〉 (↓)는 각 원리의 연역의 경로
(*)는 유일지도체계의 이론적 기초인 혁명적 수령관이 도출되는 지점
(**)는 주체사상의 최초의 정식화(1965년)

출처 : 이종석(1995), 전게서, p. 36.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

주체사상의 형성배경은 사회주의 체제건설과 대내외정책의 정당화라는 대체로 합리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것들이었다[81]. 그러나 주체사상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비합리적 동기가 이 사상의 발전과정에 참가되면서 변화되어갔다. 주체사상의 변화를 결정적으로 촉진한 것은 절대권력을 추구한 김일성의 제왕의식과 개인숭배 현상이었다.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 주체사상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유일사상체계확립 운동 속에서 196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혁명적 수령관이었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사상'의 절대화를 부채질하면서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에로의 변화를 추동하였다.

주체사상의 변화과정은 대체로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 변화는 1967년에 일어난 문화혁명과 베트남전 대응문제를 둘러싸고 조·중간의 갈등이 주체사상의 변화를 잉태시켰다.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마오쩌둥 사상의 절대화를 시도하던 중국공산당에 대응하여 1968년부터 주체사상을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로 규정할 때부터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의 사회주의체제 건설의 발전전략이라는 당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두번째 변화는 1974년 김일성주의가 천명되면서 이루어졌다. 김일성주의로의 변화는 1974년 10월 동경에서 열린 주체과학토론 전국집회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 토론 집회는 "김일성 주석님의 사상, 리론체계는 주체의 철학사상으로부터 대중령도리론, 기타의 광범한 영역에 시종일관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마땅히 김일성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는 선언을 채택하였다[82].

세번째 변화는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의 전일적 체계화와 혁명적 수령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가 결합하여 '지도와 대중의 결합체계'가 형성되면서 일어났다.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를 거친 후 전일적 체계화로 변화하는 데는 후계자 김정일의 독점적인 주체사상 해석권이 결정적인 촉진요인이었다.

81) 이종석(1995), 전게서, p. 95.
82) 「로동신문」, 1974년 10월 26일.

네번째 변화는 1980년대 말 東歐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를 전후하여 극히 방어적인 체제수호 논리로서 민족개념을 부각시키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회주의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기하면서 일어났다. 김정일은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중국과 소련에 대한 동반자 의식이 감소된 상황에서 민족이 사회주의체제의 완성된 단위가 된다고 보았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체제의 존속에 대한 위기상황 속에서 나온 체제고수와 사회결속의 防禦機制인데, 주목할 것은 체제 붕괴의 원인으로서 소위 '내부의 적'이라고 불리우는 권력 엘리트와 지식인의 이반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주체사상의 변화과정을 개괄하였는데, 첫번째 변화양상은 '주체 제기배경과 체계화 과정'에서, 세번째 변화 양상은 '주체사상의 이론적 틀'에 이미 고찰하였으므로, 두번째 변화 과정인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는 여기에서 분석하고, 주체사상의 방어기제인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음 절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 背景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는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김일성이 자신의 사후 혹은 퇴진 후 예상되는 자신에 대한 격하운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계속 절대화해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83]

레닌과 호지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산국가 지도자들은 사후에 예외없이 그들의 후계자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아왔는데, 김일성은 자신의 사후 이같은 불명예를 모면해 보고자하는 뜻에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을 신격화하여 이를 지배권의 원천으로 하는 신성국가를 만들어 김일성 사후에도 김일성의 권위로 통치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83) 이상우(1988), "김일성체제의 특질," 이상우 외,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pp. 24~26.

(북한의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의 이름으로 유훈통치를 지속하며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권력승계를 미루고 있다). 여기에 종교에서의 신의 교리에 해당되는 사상이 필요한데, 이 작업이 바로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키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하는 것을 정통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는 것이다.[84] 1973년 가을부터 구축되어온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권력승계의 정통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후계자인 김정일이 북한 인민들로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문제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비서로 권력 전면에 등장한 후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자신을 주체사상의 계승자로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는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을 사상이론가로 내세워 그 계승자로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김정일이 당내에서 이데올로기적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74년 2월 당사상사업부문 관계자들에게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면서부터이다. 이어 김정일은 1974년 4월에는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1976년 10월에는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김일성주의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게 된다. 그후 1980년 10월 당 6차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독점적 해석권을 장악하게 되며, 1982년 3월에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이론적인 사상체계로 제시하였다.

2) 金日成主義의 槪念

북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84) 김남식(1986), "북한의 권력구조", 「사회과학연구」, 제12집, p. 23 ; 高性俊 외(1992), 「轉換期의 北韓社會主義」, p. 63에서 재인용.

있으나,[85]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定式化하면서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이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 체계입니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이론과 영도 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김일성주의가 선행된 로동계급의 혁명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읍니다. 김일성주의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입니다."[86]

김일성주의에 대한 김정일의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하여 북한은 내용과 구성체계라는 상호 연관된 두 시점으로부터 김일성주의의 전모를 밝히고 그 독창성을 부각시켰다고 김정일을 추켜 세우고 있다.[87]

3) 金日成主義의 體系

북한은 위의 김정일의 정의로부터 김일성주의의 체계를 도출해내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란 자연과 사회에 관한 전일적 안목을 주는 철학적 원리와 혁명적 세계관을 뜻하며, 이론은 혁명투쟁에서 작용하는 객관적 법칙들과 원리적 문제들을 밝힌

85) 어떤 인물이 내세우는 주장이나 운동 및 지침 등이 정식으로 「주의」라는 격위로 대하려면 그에 어울리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체사상」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김일성주의란 이불성설이라는 견해도 있다. 章洙揀(1983), "「金日成主義」란 單語를 경계하자," 「北韓」, 제136호(1983. 4), pp. 228~235 참조.

86) 卓珍・金剛一・林弘濟(1984), 「김정일지도자」, 제2부, 東方社, pp. 13~14 ; 金甲喆・高性俊(1988), 전게서, pp. 149~150에서 재인용.

87) 상게서, p. 150.

혁명의 학설이다. 그리고 방법은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대중영도의 방법이다."[88]

이에 대한 북한측의 부연적 설명에 의하면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의 진수가 되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한다."[89] 그리하여 '주체사상'이란 인간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역사관, 주체의 지도원칙의 정연한 이론체계를 확립한 사상이 된다고 한다.

김일성주의에서 말하는 이론이나 방법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이 내놓았다는 각종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북한의 이론가들은 이것들을 체계화시켜서 김일성주의의 구성부분으로 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주의의 구성부분이 된 혁명이론으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론, 사회주의혁명이론,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이론, 인간개조이론,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등이 있으며, 영도방법으로는 영도체계와 영도예술이 있다.[90]

한편 북한에서 김일성주의의 천명에는 이론적인 맥락에서 볼 때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독자성 강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이밖에도 1960년대 후반에 김일성이 내놓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이행문제를 다룬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론과 사회주의 경제이론도 김일성의 사상영역을 주체사상에서 구체적인 이론영역까지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사상의 영역확장은 그의 사상을 린바오가 마오쩌둥사상을 지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부르게 했고 나아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한 김일성주의로까지 치닫게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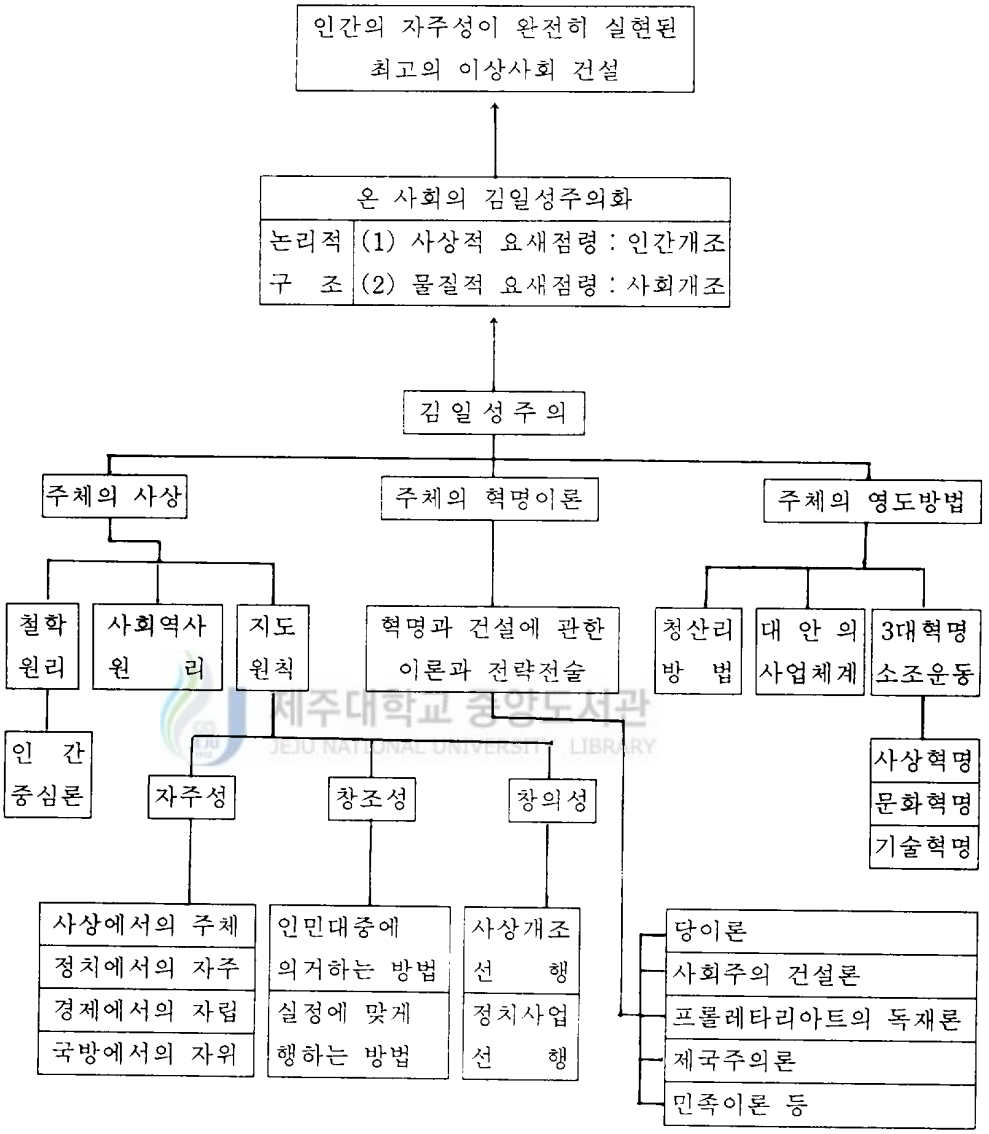
88) 상게서, 같은 쪽.

89) 상게서, 같은 쪽.

90) 김일성주의의 이러한 혁명이론, 영도방법의 구성은 1985년에 발간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권의 각권 제목과 일치한다.

이상의 김일성주의의 체계를 표로 옮겨보면 〈표3〉와 같다.[91]

〈표 3〉 金日成主義의 構成體系



91) 高性俊(1988), 전게논문, p. 82.

4) 金日成主義의 공식천명 여부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일성주의'의 완결성을 주장하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외에 김정일의 이론적 업적을 내세우려할 때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규명해 볼 수 있다.[92] 첫째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소를 비롯한 공산권으로부터의 비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김일성주의'의 내용과 독창성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에 있다. 셋째는 '김일성주의'를 공식화하는 경우 배수진을 쳐야하는 데 그 모험의 전도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즉 '김일성주의'를 공식 이데올로기로 내세운 후 체제건설과 발전에 실패한다면 그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해 온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혹은 "주체사상의 재해석" 따위의 궁색한 변명이 설자리를 잃게 될 위험성에 놓이게 될 모험이 있다. 이는 북한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김일성주의'를 선언하지 않고서도 주체사상으로 충분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이론적 틀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대외적으로는 '김일성주의'라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이론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9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와의 관계

주체사상은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일컫는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으로 나누어진다.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이란 앞에서 고찰했듯이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체계화된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을

92) 高性俊 외(1992), 「轉換期의 北韓 社會主義」, p. 67.
93) 이종석(1995), 전게서, p. 44.

구성요소로 하는 본래 의미의 주체사상을 말한다.[94]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주체사상은 이것보다 외연이 넓은 주체사상이다. 김일성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흔히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컬어지는 김일성주의는 원래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을 정수로 하여 이론, 방법을 포괄한 김일성의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 그것은 그대로 주체사상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를테면 김일성주의가 전체집합이라면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부분집합인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일컬어지는 김일성주의는 전체집합인 주체사상이다.

4. 主體思想의 防禦機制 : '조선민족 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1) 背 景

1990년대 북한지도부의 최대 정책과제는 사회주의권 붕괴의 충격을 극복하고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외부의 충격뿐 아니라 내부의 충격에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의 충격은, 중국이 1978년 덩샤오핑 집권 이후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과, 소련에서 1985년부터 고르바쵸프가 주도한 페레스토로이카라는 사회주의체제 개혁정책 및 그 이후 급속한 사회주의체의 붕괴에 따른 것이다. 특히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밑으로부터의 저항에 의하여 붕괴하였을 때, 그리고 소련에서 사회주의 강경 보수파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시민들이 전면적으로 저항하고 나선 데 대해서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체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

내부의 충격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경제체제의 모순으로 경제문제가 위기적 국면으로 치달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결과 주민들의 의식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

94) 이종석(1995), 「현대 북한의 이해 : 사상 · 체제 · 지도자」, 역사비평사, pp. 52~53.

북한은 이러한 충격 속에서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었던 주체사상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변혁에 대한 대응 논리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해 민족개념을 부각하였으며,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에 대한 이론적 대응으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게 되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공통으로 흐르는 논리는 북한 사회주의체를 매우 防禦的인 측면에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에 대한 독자적인 논리로서 등장한 자주성이 4가지 원칙이나 수령의 권위를 절대시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각각 실천이념으로서 또는 유일체제의 정당화 이념으로 활용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가 내부분열로 대변혁을 경험할 때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단절과 차단을 통해 김일성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주체사상을 만들었듯이,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대변혁 속에서 주체사상은 다시 단절과 차단의 이데올로기로서 외부의 변화가 국내에 침투하여 주민을 동요시킬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변화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조선민족제일주의

(1)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사회주의에서의 민족주의는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 까닭은 첫째로 사회주의자들은 19세기 유럽에서부터 민족주의가 그 주요 담당자인 부르주아의 이익에 봉사하였다는 인식이다. 민족주의는 토착 부르주아들에게 국내 시장을 보장해 주었고 그들의 해외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제국주의 형태를 띤 민족주의는 식민지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왜곡시키며 식민지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만 몰두하고 민족주의를 계급투쟁을 방해하

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95]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은 마르크스의 이론적 예견과는 달리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 운동의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관계에 관한 인식에는 몇 가지 異見이 존재한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공허한 허구로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견해를 갖게 되었으며, 노동운동을 자연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96]

반제국주의운동에서 민족주의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레닌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민족운동을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닌은 사회주의적 프롤레타리아만이 제국주의의 진정한 적대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수 민족의 민족운동에서 그는 프롤레타리아가 그 계획을 완수하는 것을 돕는 하나의 효소 역할, 하나의 박테리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민족주의를 변호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범위를 진보적인 민족운동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진보적인 민족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민족문제에 대한 레닌의 본질적 원칙이었다.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민족문제에 대한 레닌의 가장 독창적인 공적은 민족과 계급을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그의 시도에 있었다. 그러나 레닌에게 민족자결권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전술적 문제였고, 따라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아니었다.[97]

레닌의 온건적 인식과는 달리, 비타협적 국제주의자로서는 스탈린과 로자 룩셈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95) Horace Davis(1978),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Monthly Review Press, p. 27.

96) *Ibid.,* p. 31.

97) 박호성(1989),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까치, p. 234.

르크를 들 수 있다.[98] 스탈린은 철저한 계급적 관점에 기초하여 민족주의에 대해 강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다.[99] 데이비스(Horace Davis)는 스탈린보다 민족주의에 대하여 더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공산주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였다. 철저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로자 룩셈부르크는 민족의 억압은 자본주의적 지배의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보고 자본주의를 제거하지 않고는 민족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100]

(2)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변화

1950년대 후반에 나타난 김일성의 민족주의관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테두리 안에서 그는 당시 민족주의를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자체의 민족적 리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리익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다.[101]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196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 그 결과 사회주의에서의 민족주의적 담론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102]라는 말을 일반화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민족주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일반화된 가운데 북한 지도부의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1973년 발행된 「정치사전」은 "민족주의는 계급적 리익을 전민족적 리익으로 가장하고 자기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적대를 일삼는 부르죠아 사상" "민족주의는 언제나 부르죠아적 성격을 띤다"고 서술하고

98) 서재진(1995), 「또 하나의 북한 사회」, 나남, p. 400.

99) 그러나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 자체는 사실상 민족주의적 논리다.

100) 서재진(1995), 전게서, p. 400.

101) 김일성(1957),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1957. 12)", 조선로동당출판사(1981), 「김일성저작집 11」, p. 410.

102)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정의된다. 최성욱(1973),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조선로동당출판사, p.430.

있다.[103]

그러나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1980년대에 들어서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10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대남책임자인 김중린은 당시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토론에서 "민족이 있고서야 혁명과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사상과 리념도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을 떠나서는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104]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인식 변화에는 사회주의 민족의 민족주의적 이론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는 통일민족을 담아낼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변화는 부르주아민족주의를 제국주의국가의 민족주의와 피압박민족 부르주아지의 민족주의로 이원화시키고, 그 가운데 후자의 역할을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에 간행된 「철학사전」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피압박 부르죠아지의 반제적 측면이 인민대중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결합할 때 그것은 일정하게 진보적 역할을 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제한성과 동요성을 고려"해야 한다.[105]

한편 북한 지도부의 민족주의 인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은 1986년 7월에 후계자 김정일이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제창하면서부터였다.[106] 후에 김정일이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그 정신을 설명한[107] 이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은 북한 지도부의 민족주의적 정향을 변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강조되는 가운데 1991년에 김일성은 민족주의 용어 자체를 복원시켰다. 북한 지도부의 인식의 전환점이 된 김일성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3) 사회과학출판사(1973),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p. 430.
104) 통일원(1988),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4집, 통일원, p. 322.
105)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1985), 「철학사전」,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p. 253.
106) 김정일(1986),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12)," 조선로동당출판사(199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p. 249.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 사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부르죠아지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습니다. 부르죠아 민족주의는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는 대치되는 사상입니다…… 정신로동을 하던 육체로동을 하던 자기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민족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일 민족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됩니다."[108]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이 부르주아민족주의의 배격을 고수하면서 그 대칭적 개념으로 참다운 민족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낸 점이다. 김일성은 참다운 민족주의를 제안하면서 참다운 애국자만이 세계혁명에 충실한 국제주의자로 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단언하였다.[109]

(3) 조선민족 제일주의

1986년 7월 김정일이 처음 제시한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현재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지배적 담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민족주의에 제일이라는 용어를 삽입시킴으로써 가장 칠저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은 이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북한 지도부가 지니고 있는 민족주의 인식을 옳게 파악하는 지름길이다.

먼저 조선민족 제일주의란 무엇인지부터 고찰하기로 한다.

북한에서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민족 자주의식의 높은 표현'[110]이며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아가려는 높은

107) 김정일(1989),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1989. 12)," 상게서, p. 249.
108) 김일성(1991),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1991. 8)," 통일원(1991), 「월간 북한동향」, p. 145.
109) 상게서 p. 146.
110) 김정일(1989),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출판사(1992), 전게서, p. 249.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111]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 민족제일주의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112]이라고 한다. 특히 여기서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긍지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할 것"으로 규정된다.[113] 그리고 "우리식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기초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어 나가자는 것이 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발양시키는 목적"이라고 규정된다.[114]

한편 조선민족 제일주의에서는 "우리 인민이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인류 역사 발전의 여명기로부터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해온 민족적 전통에서 찾고 있다. 김정일은 우리 민족을 "예로부터 한 핏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 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민족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온 지혜롭고 재능있는 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전통을 받은 우리 인민은 장구한 역사적 기간 동안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115]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지도아래 이루어진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건설이 바로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정신을 발양시켜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과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이 곧 당과 수령의 위대성이 된다고 하였다.[116]

북한이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

111) 상게서, pp. 256~257.
112) 상게서, pp. 256~257.
113) 상게서, p. 265.
114) 상게서, p. 263.
115) 상게서, pp. 252~253.
116) 상게서, p. 259.

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117]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공식적인 설명에는 빠져 있으나 사회주의권 몰락이 진행되는 가운데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전략도 담겨져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내용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북한의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혈연적 유대를 과대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민족제일의 근거도 대단히 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찌보면 唯我論的 민족주의의 정서의 한 표현으로까지 느껴진다. 언어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폐기선언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118]

조선민족 제일주의에서 꼭 지적돼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조선민족이란 우리 민족의 반쪽인 북한인민만을 지칭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기초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주체형의 사회주의 민족으로서의 조선민족(즉 북한인민)이라는 전제 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리대로라면 조선민족 제일주의에서 말하는 조선민족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민족인 것이다. 북한이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표명하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은 수령을 모시고 당의 영도를 받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라는 용어의 외연을 주로 체제를 벗어나 전한반도적 의미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조선민족 제일주의에 내재한 우리 민족은 북한인민이라는 주체형의 사회주의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제일주의라면 남한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민족주의와도 만날 지점이 형성되기 어렵다. 요컨대 조선민족

117) 상게서, p. 256.
118) 이종석(1995), 전게서, p. 120.

제일주의는 북한이라는 분단국가 내의 한쪽 공동체의 대내적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수호의 방어기제라 할 수 있다.

3)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주의체제의 대변혁을 목격하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이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에게 행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개념적 연원은 그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논할 때 '우리식의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 "우리식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발전시켜 나아가는 사회주의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민족이 하나의 사회주의체제의 중요한 단위로 간주되고 있다.
>
>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집단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여 나갑니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갈 수 없습니다."[1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렇게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족 개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맥을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 논리의 전개를 살펴보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목격한 시점에서 본격 논의되어 지금까지 지속된 것으로서 북한 지도부가 매우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사회주의체제를 변호하고 있다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처음 제기할 때만 해도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대변혁에 대한 직

119) 김정일(1991),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1992), 전게서, p. 343. p. 343.

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사회로서 계급적원수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리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만큼 전진도상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120]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으로 돌렸다.

그러나 곧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주장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위한 논리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121] 그는 '사회주의 좌절'이라는 표현과 함께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해체 원인을 일일이 분석하고 북한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정일이 지적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 와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122] 첫째는 사상교양을 통한 사회통합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들 사회주의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을 사회적 소유관계에서만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체제는 사상의식의 교양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김정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결별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결국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의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함으로써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다.

둘째는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 있게 고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이 말하는 근본원칙이란 정치·경제적인 사회주의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중

120) 상게논문, p. 336.

121)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당 중앙위책임일군들에게 행한 담화, 1992년 1월 3일)"과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은 허용될 수 없다(1993년 3월 1일)"의 두 가지 문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22) 김정일(1992),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조선로동당출판사(1992), 전게서, pp. 428~457.

앙집중식 경제체제, 집단주의, 공산당에 의한 지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김정일이 염두에 있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졌던 개혁·개방이 자본주의체제의 기본 특성인 다원주의의 요소를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다원주의는 다당제를 수반하게 되어 공산당의 유일적 지배라는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김정일은 파악하였다.

셋째는 동구 및 구소련 사이의 관계는 자주성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보다는 상·하 관계 혹은 중앙·주변 관계를 통한 의존적 연계에 의해 한 체제에서의 변화가 타 체제에 전파되는 파급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넷째는 중앙집중식 관리방식이 행정화 경향, 관료주의, 세도주의라는 사회병폐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김일성이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갈 때부터 줄곧 주장해 온 것으로서 당이 정권기관을 정책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행정을 대행하거나 월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였다.

김정일은 이상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체제의 와해 요인에 대한 분석 외에도 소위 '내부의 적'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해체를 기술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한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 세력의 공모 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우경기회주의 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질식시키기 위하여 일찍부터 침략과, 봉쇄와 회유를 비롯한 갖은 파괴 책동을 직접 감행하는 한편 공산주의운동 및 노동운동의 상하층에서 나타난 혁명의 타락분자, 변절자들을 저들의 앞잡이로 이용하여 왔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운동에서 일어난 사상적 혼란과 우여곡절은 다 그 상층에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 있다."[123]

---

123) 김정일(1993),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은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1993. 3);93. 3. 4 중앙/평양방송 보도 인용.

말하자면 체제 와해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행위자가 필요한데 이는 혁명의 배신자 혹은 변절자라고 불리우는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의 적이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권력엘리트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인을 의미함에 틀림없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김정일이 내부의 적이라고 부르는 이들 사회계층은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로 사회주의체제 붕괴과정에서 결정적인 공헌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회세력이라는 점이다. 한편으로 권력 엘리트들은 국가가 부여하는 합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합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가의 공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흔히는 부패라고 일컬어짐)를 저지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정한 현물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장 혹은 기업소의 관리자가 당관리에게 원자재의 조달 또는 시설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받기 위해 뇌물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이다.[124] 다른 한편으로 체제건설 과정에서 지지세력으로 통합되지 않았던 지식인층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후기 전체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무기력증을 타파하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하나의 저항 이념을 창출하는 사회집단이었다. 이들은 제도권 밖에서 시민권의 확장을 위한 투쟁을 위해 독자적인 포럼을 형성하여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마침내 시민사회의 부활 또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권력 엘리트이든 혹은 지식인이든 이들의 이반은 결국 사회주의체제의 존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상태에서 김정일은 특히 지식인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는 대책을 주장하였다. 대책이란 다름아닌 지식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지식인 계층이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계급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명한 계급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독자적 계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124) 이 외에도 일반 주민들이 비합법적 목적을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농민시장과 같은 합법적 교환기구 외에 지하경제를 통해 생필품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적인 정보교류의 공간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Vladimir Shlapentokh(1989),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0~202.

"인테리는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로동계급이나 자본가계급과 같이 자기의 계급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을 가지지 못합니다 인테리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면 혁명의 편에 서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게 되며 부르죠아사상을 가지면 자본가계급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로동자, 농민과 함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됩니다.… 인테리를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고 하나의 혁명대오에 묶어 세우는 사업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의 올바른 지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125]

김정일의 지식인에 대한 통제는 결국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해 별도의 사회집단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126] 이 점에서 그는 지식인의 집단주의 의식과 사회주의 애국심의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교양 방법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집단주의적 생명관, 애국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직생활 강화, 실천투쟁,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127]

요약컨대,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대변혁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김정일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극히 방어적인 차원에서 전개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수령 중심의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것 외에 상당 부분을 외부 혹은 내부의 적에 의한 사회주의 와해의 요인을 지적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권력 엘리트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경고성 언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125) 김정일(1990),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9월 20일)." 조선로동당출판사(1992), 전게서, p. 281.

126) 김정일은 사회주의 발전 단계별로 지식인을 통합하는 순서를 열거한 바 있다. 첫째로 노동계급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는 지식인 계층이 노동계급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둘째로 노동계급이 당을 장악한 다음에은 이들을 교양개조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지식인이라는 사회계층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상게서, p. 293.

127) 상게서, p. 295.

Ⅳ. 金日成 死後 主體思想의 展開

1. '인덕정치'로 粉飾한 '우리식 사회주의'論 提示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강조한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 사회주의체제의 수호와 이념의 재무장을 촉구하고 있다.[128]

김정일의 명의로 발표된 이 논문은 '우리식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계급적 토대'를 넘어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과학적 사회주의'이며, '인덕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필승, 불패한다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그후 노동신문 논설('94. 11. 17)을 통해 이 논문이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실성을 밝혀 준 '기념비적 총서'라고 격찬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영매체와 각계의 '반향'등을 총동원,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129]

마르크스주의가 혁명투쟁의 기본을 '물질 경제적 요인'으로 파악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을 '혁명의 근본방도'로 제기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이 논문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 사회주의를 '과학적 기초' 위에 올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과학적으로 체계화된 사회주의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와같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로 차별화한 이 논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마치 계급정책을 떠나, 전체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민대중'이란 말은 순수한 계급적 개념이 아니며,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회계급적 처지'를 보아야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척도는 어떤

128) 김정일(1994),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여기에 별도의 해설과 각주가 없는 인용문들은 이 글에서 인용한 것임.

129) 內外通信社(1995), 「內外通信」, 綜合版, 54号, 1995년 3월 15일. p. 11.

'사회계급적 토대'를 가졌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각계각층 사람들을 '인민대중'으로 결합시키는 사상적 기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국, 애민, 애족사상을 가지면 누구나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 김일성도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묶어 세워 혁명의 '일시적 동반자'가 아닌 '영원한 동행자'로 믿고 공산주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이 논문에서 '애국, 애민, 애족사상'을 가진 사람이면 '인민대중'의 성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여전히 계급성을 중시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야 '인민대중'의 성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계급적 처지'나 사회주의 사상과 무관한 것처럼 내세운 '애국, 애민, 애족사상'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등 사회주의와 계급을 사랑하는 사상감정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 애민, 애족사상'은 '사회주의 사상'과 표현을 달리한 同義語이다.

또 이 논문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교양 개조하며 옳은 길로 이끌어 주어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빛내어 나가도록 보살펴 주고 있다"고 강조, 사회주의 정치가 본질적으로 '인덕정치'라고 선전하고 있다.[130]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편 북한은 1994년 11월 5일 '김정일 혁명역사 강좌(평양방송)'를 통해 그가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은 물론, '복잡군중'에 대하여도 교양개조를 통해 혁명의 주체로 내세워 주었다고 주장, 이를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이 강좌가 김정일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한 것과 때를 맞추어 보

130) 북경에서 열린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96. 7. 31~8. 1)에서 북한측대표 손영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사회는 평등을 인간본성에 맞게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더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사랑이란 면에서는 인덕정치를 하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측대표들은 주체사상을 말할 때 '인간중심의 사상'으로 규정하고 '사랑'을 강조했다. 한국일보사(1996), 「남북·해외학자 학술회의」, 한국일보사, p. 169.

도된 점으로 보아, 김정일이 논문내용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지칭한 계층은 바로 이 강좌의 '복잡군중'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주위 환경이나 지난날의 사회정치생활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이라고 규정된 이 '복잡군중'에 대하여도 북한은 '사회계급적 토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 '사상'과 '행동'을 본위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잡군중'이라도 "당을 따라오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따뜻이 보살펴 준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연속강좌는 '남반부출신'과 '재일귀국자'들에게도 그같은 '인덕·광폭정치'가 베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김정일의 논문과 '혁명역사강좌'가 주민의 '계급적 토대'와 관계없이 현재의 '사상과 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 북한이 여전히 계급정책을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으로 삼고 있음은 자명하다. 계급정책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회주의혁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노동(당)계급이 주체가 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건설을 사회적 정당성의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러한 계급적 성격은 지난 '9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규정을 삭제, '인민민주주의 독재(제12조)'로 대치함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성격을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계급성을 강화한 데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72년)에 없던 노동당의 법적 지위를 92년 헌법 개정시에 신설(제11조)한 바 있다.

이러한 노동(당)계급의 실질적 독재를 은폐하고 대신 '인민대중'적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은 이른바 군중노선(헌법 제13조)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헌법 개정(92.4.9) 직후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시대의 역사적 조건은 노동계급의 당을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근로하는 모든 계급 계층의 선진분자를 망라하는 대중적 당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131]

131) 김정일(1992),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해,"(92. 10. 10);內外通信社(1995), 전게자료, p. 13에서 재인용.

그는 이번에 발표한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도 "노동계급의 당은 계급투쟁도 벌여야 하지만, 당의 모든 활동은 언제까지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 선후가 모순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계급정당인 노동당을 전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라고 선전하는 이유 역시 그같은 계급성과 '인민대중'성의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인민대중' 중심이라고 강조, 이를 '인덕정치'로 분식하고 있는 것은 계급정책의 한계와 실패를 반증한 것으로, '인민대중'을 위한 '인덕정치'의 실현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혁명수행에 그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의도는 김정일 '혁명역사 강좌'가 "환경이나 경력이 복잡한 사람들을 다 버리고 가정 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순결한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혁명을 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고 자인한 데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조국통일 투쟁이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 침략세력 사이의 투쟁이라고 규정한 이 '강좌'는 "이 투쟁에서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13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김정일이 이 논문에서 혁명의 근본방도로 '인덕정치'를 실현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강조한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의 계급적 성격을 은폐함으로써 남·북한 전민족을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묶어 세우는 인민민주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데 그 목표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급독재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 본질상 '인덕정치'로 분식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전체 '인민대중'이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노동계급 중심의 사회주의인 것이다.

132) 「평양방송」, (1994. 11. 5), 상게자료, p. 12에서 재인용.

2. '주체의 사회주의' 固守

김일성 사후 북한 정권당국이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legitimacy)과 정체성(identity)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속에서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북한이 왜 사회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려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한 후 1995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과제이다"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의 전반적인 기조는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비장하게 다짐하고 있는데 김정일은 사회주의전선의 와해가 유물사관의 명제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사상사업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설과 더불어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방심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나, 인간은 물질적 여건에 의해 완전히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성사에도 불구하고 구체제의 유습과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했듯이 오늘날 외부로부터 침습해 오는 자본주의와 자유화의 물결에 맞서 치열한 사상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능히 객관적인 여건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세계개조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며, 그리하여 당은 사상교육의 형식화를 불식시키고 과거 항일유격대 시절의 사상투쟁의 전통을 재건해야 한다고 김정일은 주장한다.

김정일의 사상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교시는 한편으로 완고한 체제사수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외개방에 즈음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변화의 물결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95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금세기 최악의 수재라는 자연적 재앙을 만나 그 어려움은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에 가중된 홍수피해는 북한에서 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치일정에 큰 영향을 줌은 물론이고 이의 극복여부가 향후 김정일 정권의 존속 내지는 변화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96년 초부터 북한은 언론을 통해 "김정일의 「붉은기사상, 붉은기철학」으로 살고 투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일성 생전에는 신년사에 해당되는 1월 1일 「당보(로동신문)와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로동청년)의 공동사설」은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라는 주제로 체제유지를 위한 '사회주의의 3대(정치 사상, 경제, 군사) 진지' 구축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1월 9일자 '로동신문'은 김정일을 「붉은기사상, 붉은기철학」의 창시자로 주장하면서 그것은 주체의 혁명철학, 일심단결의 철학, 신념의 철학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2월 1일 로동신문은 "위대한 역사적 재부를 이룩한 세련된 영도자"라는 글을 통해 김정일이 혁명의 토대를 마련하여 온 30여년의 전 노정은 언제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투쟁으로 진로를 개척해 온 것이며, 이러한 김정일의 역사는 북한 인민들에게 혁명가의 일생이 붉은기를 휘날려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혁명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로동신문'은 "혁명의 모든 재부에 김정일의 '붉은기사상, 붉은기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여 김정일의 '붉은기사상, 붉은기철학'이 주체사상을 대신할 새로운 사상으로 등장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동안 김정일의 이론적 권위가 '주체사상의 해석권자'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상의 창조자로 김정일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최근 북한군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권력구도 형성과 연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133]

그러나 소위 김정일의 '붉은기사상, 붉은기철학'에 대한 아직 이론적 체계나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주체사상의 대체 이데올로기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주체사상은 비록 김일성에 의해 제기됐으나,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후계자의 명분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저버리고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것은 곧 권력승계자로서의 자신을 스스

133) 金聖哲(1996) "金正日 통치이데올로기 : 주체사상에서 '붉은기 철학'으로," 「新東亞」, 1996년 4월호 pp. 216~223.

로 짓밟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역시 김일성 사망후 발표한 일련의 담화에서 주체사상을 강조했지, '붉은기사상, 붉은기철학'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붉은기'라는 용어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김일성에 의해 주도되어진 반주에서의 항일유격대 시절을 뜻할 때 자주 쓰여진 용어이며 73년 2월 김일성의 교시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3대혁명을 더욱 더 강도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게 전개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134]

따라서 '붉은기사상, 붉은기철학'은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동원용 통치개념일 뿐이다. 이울러 김정일이 공식승계를 앞두고 김일성과 부분적이나마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조작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시대상황에 맞추어 주체사상의 하위개념이 많이 제기됐는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등처럼 '붉은기사상, 붉은기철학'도 주체사상의 외피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135]

3. 政治 思想敎養의 强化 : 金正日 讚揚의 極致

1980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북한은 교육과 사상학습을 통해 '주체형의 인간'을 강조하면서도 현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구조적인 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식대로 살자', '우리식 사회주의 필승불패', '오직 한길 따라 효성' 등의 구호를 내걸고 정치교화와 사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136]

오늘 북한당국이 일상적인 국정운영보다도 선차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과제가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다. 북한 선전매체의 임의의 하루 활동을 추적해 보기만 하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요컨대 그 찬양의 도수는 과거 소련이 행했던 스탈린찬양

13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1983), 「백과전서」 p. 594 참조.

135) 고성준(1996), "김정일의 통치이념과 체제, 변화가능성," 「이념제도위원회 제22차 회의자료」 (1996. 4.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36) 통일원 편(1995), 「북한의 이해」, 통일원 통일연수원, p. 249.

이나 북한 자체가 추진해 온 김일성신격화조차 무색케 한다.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을 한반도의 위인과 영장(領將)에 국한시키는 것은 큰 불경에 해당한다. 그는 "인류의 희망", "세계의 향도성(嚮導星)"이며, "동서고금의 어느 위인도 건줄 수 없는 절세의 영걸"인 것이다. 이런 상상을 초월한 개인찬미는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아직도 굳혀지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선 관심을 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일 개인에 대한 절대화의 문제이다.

1970년대 초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래 이를 가리켜 "권력세습"이니 "왕조건설"이니 불러왔지만 이런 호칭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다. 이 권력계승의 본질은 해방이후 집권을 계속해 온 김일성정권의 "영욕"일체를 김정일 개인이 물려받는다는 사실에 있다. 북한이 스탈린과 마오쩌둥 사후의 격하에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 정설인데 김일성정권의 경우 자신의 치적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중·소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남한과 치열한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컨대 6·25 전쟁책임과 같은 김일성정권의 "욕된 부분"이 거론된다면 그것은 필연코 한 정권의 책임문제를 지나서 북한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 후계자로서의 '아들'의 선택이 단순한 권력유지욕에서 나온 奇行이라기 보다는 김일성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 판단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정권, 즉 북한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김정일이라야만 된다고 판단했다. 오늘날 북한에서 "당신(김정일)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구호가 고창되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조국도 없다"는 노래가 애창되는 것도 위의 맥락에서 풀이된다.

이처럼 정권은 물론, 국가의 정통성마저 지도자 개인의 위상 속에 융해해 버린 북한으로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의 절대화가 필수불가결하며 어떠한 상대화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137]

137) 吳忠根(1996). "김정일체제하의 북한정치." 「북한의 변화와 신동북아질서」, 동국대 안보문제연구소 주최 1996년도 통일문제 국제학술회 발표논문, 서울, 타워호텔렉스룸, (1996. 5. 11), pp. 5~11.

Ⅴ. 主體思想의 變化 可能性

1. 北韓體制維持의 特性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시기가 러시아와 동구라파에서 공산 체제들이 붕괴한 지 얼마되지 않은 격동기였고, 또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던 시기였기도 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 체제는 단시일 내로 붕괴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김정일의 권력 승계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해가 강하게 팽배한 바 있었다.[138] 그러나 1996년 6월의 시점에서 볼 때 식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김정일에 대한 반대 세력의 징후는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은 어찌해서 러시아와 동구라파의 많은 공산 체제들이 붕괴한 전철을 밟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이 질문은 앞으로의 북한을 전망하기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북한의 체제는 과거의 소련이나 동구라파의 공산 체제들과 많은 공통성 내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특이한 점이 많은 체제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체제는 동구라파의 체제들과 다분히 다른 역사의 길을 걸어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여기에서 총체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조선 노동당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붕괴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던 시기부터 정권의 공고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장장 40여년 동안 이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여러 차례의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졌고, 당원과 일반 시민에 대한 성분 조사 사업과 사상적 '개조'를 위한 캠페인이 거행되었고, 조직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 물론 다른 나라들에게서도 유사한 행동이 취해지기는 했으나 김일성체제가 안보를 위

138) 「한국 일보」 1994년 6월 10일호는 국내 전문가 10인과 외국 전문가 10인의 북한 정권의 장래와 통일에 대한 특집으로 보도했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판단을 내렸다.

해 취한 조치들은 소련이나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에서의 경우보다도 더욱 철저하고 심층적인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일성의 사후에 북한 내부에서 별다른 동요가 없었던 것도 역시 김일성이 40여년간 권력의 확립과 김정일 승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소련이나 동구라파 각국의 그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논의할 수가 없다.

소련과 동구라파의 여러 공산 체제들이 붕괴하는 사태가 북한 정권에게 위기를 가져왔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북한의 체제는 이미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은 바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예로 중·소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에 북한은 소련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써 군사 장비를 비롯하여 석유 공급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고갈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7개년 경제 계획을 3년간 연기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에도 북한은 3년간의 경제 계획 조정의 길을 택한 바 있는데, 이 조치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인데 유일 지도 체제가 정착된 것은 소련의 공산주의가 변질, 또는 변형하는 기간이었고 북한이 고립화되고 있던 시절이었다는 것은 현시점을 분석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소련과 대립했던 경험을 가졌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과도 심각한 대립을 한 바도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주체성을 강조하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유일지도체제는 긴박한 상태 하에서 대내적인 도전과 대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체제가 소련이나 동구라파 각 국에 있어서의 공산 체제의 붕괴를 주시하면서도 내부적인 동요를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했을 것은 물론이다. 김정일은 1993년 3월 1일에 발표한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 세력의 공모 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와 우경주의 사상의 부식 작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

동이다."[139]라고 지적했는데, 이 해석이 북한 내부의 단속을 위해 어떻게 반영되었을 것인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천지개벽이나 다름없었을 소련과 동구라파에서의 사태의 진전은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한 동요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되는데,[140] 그가 내세운 대책은 "사회주의 사업을 옹호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끊임없이 발전 완성시키고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사회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엘리트에게 있어서 유일 체제의 수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가 없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이들이 신봉해 온 세계의 붕괴나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엘리트의 정권 계승에 대한 태도 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일 체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이 불가결한 요소인데, 정치적인 안정은 김일성이 지시한 김정일에게로의 권력 주도권 승계를 제외하고는 이룩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北韓社會의 變化 可能性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정일이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체제운영문제를 놓고 볼 때는 북한사회에 있어 의미있는 변화가 예상된다.[141]

---

139) 김정일(1993),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1993. 3. 1)" 「로동신문」, 1993년 3월 4일.

140) 이러한 사태는 김정일의 글에서도 지적되었다. 그의 3월의 글에 의하면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이 황당무계한 궤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서 사상적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은 인민 대중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데 기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141) 북경에서 열린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들은 개혁, 개방에 대해서 자유주의 바람을 불어 넣어 체제를 어떻게 하려는 술책이라고 일축하고, 북한은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철학을 가져서 잘못된 것이 없으므로 개혁, 개방이 새삼스럽게 필요치 않다고 했다(북경 : 1996. 7. 31~8. 1).

현재 북한은 '3대혁명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으로 국제혁명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남한에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대남공산화를 위한 역량증진도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 더욱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은 경제난의 악화와 바깥세계에 대한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마디로 체제내외의 환경이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개발카드를 활용하여 국제혁명역량의 급감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남한의 반정부세력을 고무시키는 통일전선전략을 계속 실행하여 남한의 혁명역량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민족적 정통성이 북한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새로운 민족주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통치엘리트들은 지금의 북한을 '3대혁명역량'의 총체적 위기로 판단하고 이를 벗어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들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몰락에서 배운 '역사적 교훈'은 바로 "사회주의 원칙으로부터의 한걸음의 양보와 후퇴는 열걸음, 백걸음의 양보와 후퇴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로동계급의 당자체가 파멸되지 않으면 안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짧은 시일내에 북한이 지금까지의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수정을 가하는 식의 사회·경제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이러한 체제수호의 의지와는 달리 최근들어 북한의 체제유지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즉, 경제성장이나 사회경제적 평등에 있어서 사정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적어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거두었고 남한에 비해 뒤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사회주의권에 변혁의 바람이 불어 닥친 1990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식량부족현상, 수재 등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 이제 경제회복 문제는 북한체제 유지의 가장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다.

최근 벌목공을 포함한 귀순자들 대부분이 "밥만 해결되었으면 넘어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데서, 북한 사회는 이미 배고픔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수준에 접어들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데 김정일 체제의 향방은 무엇보다도 경제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도 김일성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제와 동원을 통해 수령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한편, 그 보조수단으로서 물질적 보상을 활용해 주민들의 복종과 충성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 만일 악화된 경제상태에서 물질적 보상을 계속적으로 주지 못하고 정치교화만 강조하면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수립해 나가기 어렵게 될뿐 아니라, 김일성 시대와의 비교에서 오는 '인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물질적 보상을 유지·강화시키는 이른바 '선물정치'를 위해서는 예컨대 식량, 생필품, 외화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결국 식량부족, 생필품부족, 외화부족의 '3부족' 해결여부가 김정일 체제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라는 이른바 "3대 제일주의"를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선포·강조함으로써 '3대부족'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확대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른바 '신무역체계'를 도입하여 생산과 무역부문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가 내외무역까지도 직접 담당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경제특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 정책도 '3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 현재까지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청진 자유무역항'설치에 국한되어 있는데 개방지역 이외의 내륙지역에서는 합영·합작법을 활용한 외자도입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특구에서는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주력수출 생산기지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 '3부족' 특히 외화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대미관계개선은 우선 국제금융기관 및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문제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관이 미국의 승인없이는 북한에 대한 차관공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의 관계진전은 약 50억달러의 보상금 지급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는 일본과의 수교협상에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금액은 경상GNP가 200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생존권 확보라는 안보차원은 물론이고, 경제난 해결의 핵심열쇠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국제경제협력까지도 도모하는 북한식 실용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생존을 위한 필요가 김정일로 하여금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북한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개방의 파장을 예상하여 주민들의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외부사상의 유입을 억제하더라도, 북한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완벽하게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즉, 생존을 위한 필요에 의해 제한적 개방을 진행시키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연락사무소 설치를 비롯한 제반교류가 실행하게 된다면 북한 사회에도 머지 않아 이른바 '중국식 개방'현상이 나타나는 등, 의미 있는 사회변화가 정치·경제적 변화의 부산물로 서서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체제 특성상 정치이외의 다른 독자적인 영역은 거의 존재할 수도 없었다. 당과 국가, 그리고 수령중심의 전체주의적 사회를 유지해 왔고, 전통유교원리에 입각한 유기체적인 대가족 국가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변동은 항상 정치영역 속에서만 종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행진을 시작한 것인지의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북한 '사회'가 정치와는 별도로 상대적 독자성을 갖게 되어 이른바 '평양의 봄'을 싹틔우고 '평양사태'를 만들어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징후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3. 主體思想의 未來

주체사상은 앞에서 살펴 온 바와 같이 김정일 체제의 핵심이고 알파요 오메가였다.

따라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대를 이어 권력을 물려 받는 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전통문화적(즉 유교적·조선적) 가치들과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조선민족(사회주의 체제하의 북한 인민) 제일주의, 인덕정치(노동계급 중심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등을 강조하여 왔다.

한편 북한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개방에는 주체사상의 이념체계를 어느 정도 이완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북한체제를 지탱해 온 중대한 토대 즉 유일사상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또다른 체제 위협적 요소가 따른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의 견지에서 볼 때 체제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고 보면 북한체제가 내적·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은 한 주체사상이 폐기되거나 다른 사상으로 대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 '주체사상' 단어자체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뛰어넘어 초시대적이고 초민족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즉 자주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주체사상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에서도 통용되고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개념이다. 더욱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던 한민족의 정서에 부합되는 성향을 지닌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김정일정권과 운명을 같이하기 보다는 포스트-김정일체제에서도 생명력을 가져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체제가 처한 시대적·환경적 위기에 따라 주체사상의 외피와 내용은 다양하게 만들어져 제시될 것이다[142]

그러나 경제난과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주체사상 신념의 흔들림은 결국 주체사상에 대한 냉소주의 내지는 패배주의로 이어져 갈 것이다. 이 경우 북한도 중국사회의 이데올로기 공동화현상처럼 이념은 있되 이념에 입각한 인간은 없는 사회가 대두될 것이다.

142) 유영옥은 김일성 사후 인덕정치, 붉은기 철학,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재해석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통해 주체사상의 탈 김일성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옥(1996), "김일성 사후의 주체사상," 「이념제도위원회 제22차회의자료」, (1996. 4. 19).

Ⅵ. 結　　論

주체사상이 북한체제를 낳고, 그리하여 북한체제는 주체사상을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물론 양자간의 관계는 상호작용 관계일 것이다. 즉 사상이 체제를 규정하고 이끌어 온 측면도 있고 체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정치지도자들이 사상을 형성해 온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측면이 더 주가 되는 측면일까? 이 문제는 쉽게 답변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북한체제의 장래와 관련하여 연구자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 한다.

주체사상의 경우 시기에 따라 체제와의 관계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즉 대략 정권 수립 시기부터 1960년대 말 어느 시기까지를 초기로 잡고 그 이후를 후기로 본다면, 초기의 경우 사상이 체제를 규정하고 이끌어 온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후기의 경우 그 반대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주체사상은 체제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주로 체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체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물론 주체사상이 체제를 규정하는 측면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은 곧 북한체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장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주체사상의 장래, 정치체제의 장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주체사상은 북한체제가 붕괴할 때 함께 사멸할 것이다. 북한체제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운명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북한체제의 붕괴는 몇 십년 후의 일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 뉴스 특보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관심사항은 '붕괴까지의 기간에 주체사상(및 북한체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장래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는 주체사상 형성·발전의 전 기간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그 속에서 일정한 변화 유형을 추출하고 그 연장선을 그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체사상의 몇몇 특징들에 주목하

여 그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장래를 예측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이른바 '주체형'의 민족주의)와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맞게 적용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통분모 내지 접점에서 출발하여 탈 마르크스-레닌주의화 및 민족주의 전면화의 과정을 거쳐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계속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여기서 민족주의로 계속 발전한다는 것은 곧 대외적 저항을 위주로 하는 민족주의로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저항 민족주의에 기생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측면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체제가 붕괴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전까지는 현 체제의 기본적 특성과 주요 대내외 정책의 기조가 대체로 유지되면서 그 양면성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체사상이 부분적으로는 대단히 유연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유연성은 그 논리적 체계가 엉성하다는 점, 아직도 형성중에 있는 사상이라는 점, 그리고 민족주의의 무정형성 등 세 가지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주체사상의 유연성은 체제유지에 危害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연성의 범위는 일반의 상상의 범위를 넘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북한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내외의 현실은 더욱 더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미·일과의 수교라든가 중국식의 경제특구 개설·운영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적 교류의 차단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남한과 미·일 대자본가의 자본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이나 합작 등은 기존의 틀 안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변화는 말하자면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방의 성격을 띨 것이다.

셋째, 주체사상은 나름대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주체사상의 생명력은 곧 민족주의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무정형성으로 인하여, 특히 저항 민족주의는 인간의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나름대로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다. 북한 인민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민족적 '자부심'을 갖는 대가로 최소한도의 물질적 조건과 자유의 부재를 참고 견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외부와의 정보 차단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리고 준거 사회인 남한사회의 어두운 일면들이 지속되는 한 주체사상의 감정적 호소력이나 생명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생명력－남한도 그것에 일조하고 있는 생명력－은 곧 체제의 생명력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북한 체제 역시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소진될 것 같지는 않다.

요컨대 주체사상과 체제의 종착지는 붕괴 혹은 사멸로 보지만, 그 시기까지는 대체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며 상당 기간 존속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參 考 文 獻

1. 북한문헌

〈북한 출판물〉

○ 김일성(1970),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75), 「세계혁명이론」, 사회과학출판사.

○ 김정일(1987),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7년 4호.

○ _____(1991),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991년 5월 5일.

○ _____(1992),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

○ _____(1993),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1993년 3호.

○ _____(1994),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 _____(1995),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5년 5월 25일.

○ _____(1995),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1995년 6월 19일.

○ _____(1995),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로동신문」, 1995년 12월 25일.

○ 당보와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1996),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로동신문」, 1996년 1월1일.

○ 리상걸(198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설명」,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1980), 「김일성저작집 9」, 조선로동당출판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1981), 「김일성저작집 11」,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 「김일성저작집 19」,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3), 「김일성저작집 21」,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4), 「김일성저작집 27」,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 출판사.
○ _____ (1993), 「김정일선집 2」(1970~1972)」, 조선로동당출판사.
○ 최성욱(1973),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조선로동당출판사.
○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3), 「백과전서」.
○ 사회과학출판사(1973), 「정치사전」.
○ 사회과학출판사(1985), 「철학사전」.
○ 「로동신문」.
○ 「근로자」.

〈한국 출판물〉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1991), 「북한자료집 김정일 저작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성일(1989), 「정치경제학개론－주체의 정치경제학」, 기획출판 한.
○ 대동편집부 편(1989), 「철학의 정립」, 도서출판 대동.
○ 태백편집부 편(1989), 「주체사상연구」, 도서출판 태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한국문헌

〈단행본〉

○ 강정구 편(1995), 「북한의 사회」, 북한의 인식, 제4집, 을유문화사.
○ 高性俊 외(1992), 「轉換期의 北韓 社會主義」, 大旺社.

○ 金甲喆 (1977),「北韓 정치이데올로기」, 서향각.
○ 金甲喆・高性俊(1988),「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文佑社.
○ 金甲喆 외(1993),「北韓學槪論」, 文佑社.
○ 김광수 외(1996),「북한의 이해」, 집문당.
○ 金炳魯(1994),「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民族統一硏究院.
○ 金聖哲(1993),「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硏究報告書 93－10, 民族統一硏究院.
○ 金昌順(1995),「金日成 사후 500일」, 北韓硏究所.
○ _____(1991),「金日成 主體思想 批判」, 北韓硏究所.
○ 김학준(1995),「북한 50년」, 동아출판사.
○ 안드레이, 란코프(1995),「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오름.
○ 朴彩鎔(1994),「北韓主體思想硏究」, 世界아기宣敎出版局.
○ 박호성(1989),「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까치.
○ 서재진(1995),「또 하나의 북한사회」, 나남.
○ 서재진 외1995),「金日成 死後 1년 : 북한 형세의 동향과 전망」, 民族統一硏究院.
○ 徐孝一(1989),「金日成 主體思想」, 韓元.
○ 송두율(1995),「역사는 끝났는가」, 당대.
○ 스즈키 마사유키(1992),「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역(1994), 中央日報社.
○ 신인철(1994),「북한 주체철학 연구」, 나남.
○ 연합통신사(1995),「북한 50년」, 연합통신사.
○ 와다하루끼(1990),「김일성과 만주항일 전쟁」, 이종석역(1992), 창작과 비평사.
○ 柳錫烈(1995),「南北韓統一論」, 法文社.
○ 尹炳益(1989),「北韓의 主體思想」, 統一硏修院.
○ 이상우 외(1988),「북한 40년」, 을유문화사.
○ 이상우(1993),「함께 사는 통일」, 나남.
○ 李容弼 외(1988),「北韓의 統治理念과 體制」, 發行社未詳.
○ 이재홍 외(1989),「北韓의 統治理念・主體思想의 本質」, 文佑社.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이종석(1995),「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 _____(1995),「현대 북한의 이해 : 사상 · 주체 · 지도자」, 역사비평사.
○ 安正秀 외(1993),「北韓政權의 行動 : 分析과 展望」, 文佑社.
○ 양성철 · 이용필(1996),「북한체제변화와 협상전략」, 박영사.
○ 양재성(1993),「북한경제의 이해」, 평민사.
○ 梁好民(1972),「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I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양호민 외(1992),「북한사회의 재인식1」, 한울.
○ 양호민 외(1993),「한반도분단의 재인식」, 나남.
○ 양호민 외(1994),「南과 北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 李恒九(1989),「金日成 主體思想의 本質」, 현실촛점.
○ 이찬행(1993),「북한 사회주의의 현실과 변화」, 두리.
○ _____(1994),「인간 김정일 '수령' 김정일」, 열린세상.
○ 전인영 편(1990),「북한의 정치」, 을유문화사.
○ 장을병 외(1994),「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한울 아카데미.
○ 최명 편(1995),「북한개론」, 을유문화사.
○ 통일원 편(1995),「북한의 이해」, 통일연수원.
○ 하수도(1980),「김일성 사상 비판 : 유물론과 주체사상」, 한백린 역(1988), 백두.
○ 한국일보사 편(1996),「남북 · 해외학자 학술회의」, 한국일보사.
○ 한길사 편(1994),「북한의 정치와 사회2」, 한길사.
○ 허동찬(1989),「김일성 주체사상의 바른 이해」, 원일정보.

〈논 문〉

○ 高性俊(1988),"「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에 관한 硏究," 博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 _____(1996),"김정일의 통치이념과 체제, 변화과정,"「이념제도위원회 제22차 회의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996. 4. 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高有煥(1993), "김정일의 주체사상," 「安保研究」, 제33호.
○ 金甲喆(1976), "北韓 「主體思想」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 _____(1983), "金正日의 指導理念과 「主體思想」," 「北韓」, 1983년 10월호.
○ _____(1984), "北韓 統治이데올로기의 形成과 機能에 관한 연구," 韓國精神文化院 編, 「北韓統治이데올로기 研究 : 그 現況과 方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1996), "「유훈통치」와 김정일체제의 정통성," 「自由公論」, 1996년 2월호.
○ 金聖哲(1996), "金正日 통치이데올로기 : 주체사상에서 '붉은 기 철학'으로," 「新東亞」, 1996년 4월호.
○ 金淵珏(1994), "主體思의 성격과 그 비판," 「北韓研究」, 1994년 겨울호.
○ 김연수(1994), "북한의 체제개혁 전망 : 갈등적 측면을 중심으로," 「공사논문집」, 제35집, 공군사관학교.
○ 金昌順(1989),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北韓」, 1989년 9월호.
○ 朴在昌(1985), "朝南建國準備委員會 결성과 古堂 曺晩植(1945)", 「"北韓」, 1985년 8월호.
○ 朴太桂(1991), "北韓의 主體思想과 統一政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白尙昌(1989), "살아남기 콤플렉스와 주체사상," 「北韓」, 1989년 8월호.
○ 徐載鎭(1992), "김일성 이후의 政策方向," 「북한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展望」,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民族統一研究院.
○ 徐禧深(1989), "蘇軍政과 北韓政權樹立," 「論文集」, 第25輯, 第一號, 釜山教育大學.
○ 申光休(1989), "마르크시즘의 基本思想과 北韓의 統治 이데올로기로서의 主體思想," 「논문집」, 제2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 신인철(1987), "북한 '주체철학'의 관한적 성격," 「북한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吳世仁(1989), "金日成 主體思想에 關한 硏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 吳忠根(1996), "김정일체제하의 북한정치," 「북한의 변화와 신동북아 질서」,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주최 1996년도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타워호텔렉스룸, (1996. 5. 11).

○ 禹昌(1992),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비정합성과 사회변동," 「北韓硏究」, 통권 16권 (1992. 12. 1).

○ 유광진(1994), "北韓정권의 정치개혁 전망," 「北韓」, 1994년 9월호.

○ 柳吉在(1995), "政權形成期 北韓硏究에 대한一批評," 「北韓硏究」, 1995년 봄호(1995. 4. 1).

○ 유영옥(1996), "김일성 사후의 주체사상," 「이념제도위원회 제22차회의자료」,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996. 4. 19).

○ 李相軾(1993), "北韓統治이데올로기로서의 金日成 主體思想," 「논문집」, 제29집, 제1호, 부산교육대학교.

○ 李相軾・朱鳳浩(1993), "北韓의 社會主義建設과 指導體制," 「論文集」, 제29집, 제1호, 부산교육대학교.

○ 李庭植(1995), "김정일정권의 과제와 전망,"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센터 창립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 5. 2).

○ 章洙棟(1983), "「金日成主義」란 單語를 경계하자," 「北韓」, 1983년 4월호.

○ 鄭祐坤(1989), "金日成 '主體思想'에 관한 硏究 : 朝鮮勞動黨의 革命路線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慶南大學校大學院.

〈기타자료〉

○ 「內外通信」, 綜合版(53), 1994. 7. 1～9. 30.

○ 「內外通信」, 綜合版(54), 1994. 10. 1～12. 31.

○ 「內外通信」, 綜合版(55), 1995. 1. 3～3. 3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통일원, 「주간북한동향」, 제192호.

○ 통일원, 「월간북한동향」, 1991. 9.

3. 서양문헌

○ Davis, Horace 1978),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Monthly Review Press.

○ Koo, Bon－Hak(1992), *Political Economy Self－Reliance ;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 Shlapentokh, Vladimir(1989), *Public and Life the Soviet People ;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Oxford University Pres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ummary〉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Juche Idea in North Korea
– Focusing in the Theory and the Aspect of its Development –

Park, Young-Ho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the Juche Idea of North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its development aspect. Especall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edict the future of North Korea focusing on the stressing points of Juche Idea developed by Kim Jong-Il after Kim Il-Sung's death.

The concept of 'Juche' made its appearance publicly in North Korea in the mid-1950s. Beginning from this concept, it began to be systematized as Juche Idea in the early 1970s.

The transformation of Juche Idea took a concrete shape in 1974 when Kim Jong-Il was decided unofficially as Kim Il-Sung's successor and made clear 'Kim Il-Sungism'. The two theses : "On Juche Idea"(1982) and "About Some Issues Questioned in the Teaching of Juche Idea"(1986), set up its theoretical system and had an important meaning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Juche Idea.

The significant peculiarity disclosed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Juche Idea in 1980 showed that it had its clear distinction from Marx-Leninism. That is, while the succession of Marx-Leninism is showing a decline, Kim Il-Sungism shows its continuance.

Before and after that period, Kim Jong-Il saw the revolution of socialism with his own eyes. Therefore he insisted that only Chosun People under Kim Il-Sung's rule could complete the Socialism System and that Chosun People was the first rank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he advocated 'Urisik Socialism (their one and only socialism)' in the point of distinguishing their socialism system from others. This insistence arose as a defensive instinct from the recognition of their critical situation.

North Korean system and Juche Idea have their intimate relationship mutually. One side, the idea has supported North Korean forming its own system. On the other side, the politicians have fabricated their own idea for the preser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ir national polity. Therefore, Juche Idea must be vanished at the same time with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yway, I think that the previous frame of Juche Idea must be kept for the most part and remained seeming a considerable flexibillity until the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6.